2010 제주어교육자료

의성어·의태어로 배우는 제주어

20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발간사

초 봄

양 전 형

정월 보름 ᄀᆞᆺ 지나고
딱딱 ᄂᆞ린 눈 다 녹은 낮후제
물 멕이레 나온 송애기 오꼿
세경바레단 일러븐 머굴챙이 임제
냇창에서만 이레 화륵 저레 화륵

송애기는 으상으상 걸어그네
먹어볼 거 퍼찍 어신 집 마당에 들언
빙삭빙삭ᄒᆞ는 매줏고장 바리멍 눈만 끄막끄막
으시레기 에염에 앉았단 장ᄃᆞ은
줌막줌막ᄒᆞ단 야개기만 자웃자웃

봄이 서귀포에서 와랑와랑 왐젠ᄒᆞ난
하니ᄇᆞ름은 정체 으시 주왁주왁
보리왓은 좀쫌흔냥 새썹만 미쭉미쭉

정월 보름 갓 지나고
나풀나풀 내린 눈 다 녹은 오후
물 먹이러 나온 송아지 그만
한 눈 팔다 잃어버린 다 큰 멍청이 주인
냇골에서만 이리 저리 다급한데

송아지는 느릿느릿 걸어서
먹어볼 것 전혀 없는 집 마당에 들어
방긋방긋하는 매화꽃 보며 눈만 끔벅끔벅
기척 없이 근처에 앉았던 수탉은
연달아 놀라다 고개만 갸웃갸웃

봄이 서귀포에서 힘차게 달려온다고 하니
하늬바람은 정처없이 기웃기웃
보리밭은 조용한 채로 새순만 비쭉비쭉

출처: 감귤원예 2009년 3·4월호

<초봄 시에 대한 삽화>

◎ **괄락괄락**

승기 : 아휴~ 숨참쩌. 오널 무사 영 날씨가 더우냐?
(아휴~ 숨차지.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덥지?)

민우 : 이 햇살이 하영 비추는 날에 둘음박질은 뭐꽈? 역시 둘음박질은 심들언 목물랑 죽어지키여.
(이 '과랑과랑'한 날에 달리기는 뭐냐? 역시 달리기는 힘들어 목말라 죽겠어.)

지석 : 게메마씸, 무신 날이 영 덥지? ᄒᆞ루해원 물만 먹으난 돗통만 왓당갓당 ᄒᆞ게 됨쩌.
(그러게, 무슨 날이 이렇게 덥지? 하루 종일 물만 마셨더니 화장실만 왔다갔다 하게 된다.)

승기 : 게메, 난 말ᄀᆞᆯ 기운도 어서. 물이나 먹게.
(그러게, 난 말할 기운도 없다. 물이나 먹자.)

지석 : 야! 승기 물 먹는 거 보난 '괄락괄락' ᄒᆞ게 먹엄신게. 목아지 하영 물라신게. 난 물펭에 담앙강 먹어사주.
(야! 승기 물 먹는 거봐 '괄락괄락' 하게 먹네. 목 많이 말랐나보다. 나는 물병에 담아가서 먹어야지.)

민우 : 지석이 너도 물펭에 물 '괄락괄락' ᄒᆞ게 담암신게. 너도 모가지 하영 몰라신게. 하하하.
(지석이 너도 물병에 물 '괄락괄락' 하게 담고 있네. 너도 목 많이 말랐나보다. 하하하)

지석 : 아 경 헨? 하하 경 헤신가?
(아 그렇게 했니? 하하 그렇게 했는가?)

<해설>

‘괄락괄락’의 ‘괄락’은 물을 급히 마실 때 나는 소리를 흉내낸 모양, 물이 넘쳐나는 ‘콸콸’의 의미를 지닌 말이다. 컵에 물을 괄락하게 부었다는 말은 콸콸 넘치도록 부었다는 의미와 같은 뜻이고 물을 괄락괄락하게 먹는다는 말은 급히 마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낱말 알아보기>

괄락괄락:

말ᄀᆞᆮ다: 말하다

하영: 많이

ᄃᆞᆯ음박질: 달리기

ᄆᆞᆯ르다: 마르다

물ᄑᆡᆼ: 물병

◎ 과랑과랑

학생들 : 선생님 오널 오후에랑 수업시간에 공 차레 나가게마씸?
(선생님 오늘 오후에는 수업시간에 공 차러 나가요?)

선생님 : 이 넌석덜아 시험이 넬모렌디 무사 공 차젠덜 헴시냐?
(이 녀석들아 시험이 낼모레인데 왜 공을 차려고 하니?)

학생들 : 추석이 넬모렌디 어제 벌초덜 헤부난 문딱 몸이 뻐근ᄒᆞ여마씸. 몸 풀기도 홀 겸 축구ᄒᆞ러 나가게마씸.
(추석이 낼모레인데 어제 벌초들 하니까 모두 몸이 뻐근해요. 몸 풀기도 할 겸 축구하러 나가요.)

선생님 : 이놈들아! 저 밖겯디 날씨 더운 거 봠시냐. 벧이 '과랑과랑'ᄒᆞᆫ 디 나강 축구ᄒᆞ다간 문딱 쓰러정 말거여.
(이놈들아! 저 밖에 날씨 더운 거 보느냐. 볕이 '과랑과랑'한 데 나가서 축구하다가는 모두 쓰러지고 말거다.)

반장 : 애덜아 정말 밖겯디 벧이 장난 아니게 '과랑과'랑ᄒᆞᆫ 디 오널 공차민 쓰러지는 사름 나올 거 ᄀᆞᆮ아.
(애들아 정말 밖에 볕이 장난 아니게 '과랑과랑'한 데 오늘 공차면 쓰러지는 사람 나올 것 같아.)

선생님 : 다덜 정신ᄎᆞ려 이놈들아! 책이나 페워. 수업이나 ᄒᆞ게.
(다들 정신차려 이놈들아! 책이나 펴. 수업이나 하자.)

학생들 : 너무 헴수다. 선생님!
(너무해요 선생님!)

<해설>
‘과랑과랑’은 볕이 세고 더운 뙤약볕을 말한다. 흔히들 ‘날이 과랑과랑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볕이 뜨겁고 세다는 말을 의미한다.

<낱말 알아보기>
과랑과랑:
헤부난: 하니까
벧: 볕
무사: 왜
문딱: 모두
밖겯디: 밖에

◎ 간실간실

선생님 : 이 넌석덜 둘이 무사 싸와시냐?
(이 녀석들 둘이 왜 싸웠느냐?)

준식이 : 호준이가 자꾸 날 놀령 경 헤수다.
(호준이가 자꾸 저를 놀려서 그랬어요.)

호준이 : 난 놀리지 안헤수다. 준식이가 나 보단 여자 아이덜 ᄒᆞ고 더 친ᄒᆞ게 지내난 “넌 여자 아이덜 ᄒᆞ고 놀젠만 ᄒᆞ다간 장개도 못강 홀 거다.”라고 말 ᄀᆞᆯ앗을 뿐이우다.
(저는 놀리지 않았어요. 준식이가 저희 보다는 여자 아이들 하고 더 친하게 지내서 “너는 여자 아이들 하고 놀기만 하다 장가도 못가고 할 거다.”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선생님 : 허 참! 경 헤도 경 말ᄀᆞᆯ민 못쓴다. 친구덜끼리 ᄀᆞᆮ이 사이좋게 지내사지 경 ᄒᆞᆫ 걸로 친구를 놀리민 안 뒈지?
(허 참!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못쓴다. 친구들끼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런 걸로 친구를 놀리면 안 되지?)

호준이 : 재미이서마씸. 준식이는 여자 아이덜 ᄒᆞ고 ᄀᆞᆮ이 밥도 먹고, ᄀᆞᆮ이 놀아마씸. 분명 준식이는 낭중에 장개도 못갈거라마씸.
(재미있어요. 준식이는 여자 아이들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아요. 분명 준식이는 나중에 장가도 못갈 거예요.)

선생님 : 호준아! 경 말ᄒᆞ민 못쓴다.
(호준아! 그렇게 말하면 못쓴다.)

준식이 : 선생님 호준이 저 ‘간실간실’ᄒᆞᆫ 거 좀 봅써. 선생님 이성 제가 못 덤빌 줄 알고 옆이서 자꾸 정 말ᄒᆞ여마씸.
(선생님 호준이 저 ‘간실간실’한 것 좀 보세요. 선생님 계셔서 제가

못 덤빌 줄 알고 옆에서 자꾸 저렇게 말한다니까요.)

선생님 : 호준이도 준식이도 다 그만ᄒᆞ라. 친구 ᄉᆞ이에는 서로 우애 잇고, 애껴주멍 지내사 ᄒᆞ는 거다. 어른덜 눈치 보멍 술술 놀리는 '간실간실' ᄒᆞᆫ 행동은 ᄒᆞ지 말아사 ᄒᆞᆫ다. 알아시냐?
(호준이도 준식이도 다 그만해라. 친구 사이에는 서로 우애 있고 서로 아껴주면서 지내야 하는 거다. 어른들 눈치 보면서 살살 놀리는 간실간실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알았지?)

호준이 : 네, 선생님 앞으론 조심ᄒᆞ쿠다.
(네. 선생님 앞으론 조심할께요.)

<해설>
'간실간실'은 눈웃음 살살치며 남을 가볍게 여기는 모양, 밉살스럽고 간사하게 알랑거리면서 남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갠실갠실이 있다.

<낱말 알아보기>
간실간실:
년석덜: 녀석들
ᄀᆞᆮ이: 같이
경 헤수다: 그랬어요.
놀령: 놀려서
ᄉᆞ이: 사이

◎ 거랑거랑

순이엄마 : 순이야! 엄마 밧디 나간 ᄉᆞ이에 청소 좀 ᄒᆞ라고 헤신디 이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순이야! 엄마 밭에 나간 사이에 방 청소 좀 하라고 했는데 이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순이 : 엄마! 친구덜이 놀레 왕 놀단보난 청소ᄒᆞ지 못헤수다.
(엄마! 친구들이 놀러 와서 놀다보니 청소하지 못했어요.)

순이엄마 : 요 녀석덜이 놀아시민 대충 정리라도 해사 홀 것을. 방이 이게 뭐냐? 무신 놀이를 헤신디 이 모냥이냐? 대비영, 종이영, 옷이영, 이불이영 ᄉᆞ방에 '거랑거랑'ᄒᆞᆫ 모냥이……. 엄마 옆집이 뎅경올 동안 뿔리 치우라. 그때ᄁᆞ지 치우지 안 ᄒᆞ면 혼난다.
(요 녀석들이 놀았으면 대충 정리라도 해야 할 것을. 방이 이게 뭐니? 무슨 놀이를 했는데 이 모양이지? 양말이며, 종이며, 옷이며, 이불이며, 사방에 '거랑거랑'한 모양이……. 엄마 옆집에 다녀올 동안 빨리 치워라. 그때 까지 치우지 않으면 혼난다.)

순이 : 네! 알아수다. 엄마, 친구덜 ᄒᆞ고 귀신놀이 ᄒᆞ단 보난 영 어지렁헤져수다. 죄송허우다. 옆집이 뎅경올 동안 치와놓쿠다.
(네! 알았어요. 엄마, 친구들 하고 귀신놀이 하다 보니 이렇게 어지럽혀 졌어요. 죄송해요. 옆집에 다녀올 동안 치워놓을께요.)

순이엄마 : 알앗쩌. 친구덜이 가고 어시민 처음추룩 정리를 해사 ᄒᆞ는 거주. 알아시냐?)
(알았다. 친구들이 가고 없으면 처음처럼 정리를 해야 하는 거란다. 알았지?)

<해설> 옷이나 천 따위가 너덜너덜하게 걸린 모양. 여기저기 정리되지 않은 사물들이 널리고 걸려 어지럽혀진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그랑그랑이 있다.

<낱말 알아보기>

거랑거랑:
못헤수다: 못했어요
뎅기다: 다니다
밧디: 밭에
모냥: 모양
대비: 양말

◎ 꾸물락꾸물락(꾸물꾸물)

용호 아방 : 용호야! 강 쉐 촐 좀 멕영 오라.
(용호야! 가서 소 꼴 좀 먹이고 오라.)

용호 : 알아수다.
(알았어요.)

용호 아방 : 용호야! 확 일어낭 쉐 촐 좀 멕영 오라.
용호야! 빨리 일어나서 소 꼴 좀 먹이고 오라.

용호 : 알아서마씸. 일어나수다.
(알았다니까요. 일어났어요.)

용호 어멍 : 용호야! 일어나민 놋씻고, 장작 좀 옮기곡 해사주. 경 ᄒᆞ고 쉐 촐 멕이레 가라.
(용호야! 일어나면 세수하고, 장작 좀 옮기고 해야지. 그리고 소 꼴 먹이러 가라.)

용호 : 알아서마씸. 자꾸 보체지맙써.
(알았다니까요. 자꾸 보채지마세요.)

용호아방 : 저놈 ᄒᆞ는 모냥 ᄒᆞㄱᆞㅁ 보라. 냉중에 뭐사 뒈젠 경 ᄒᆞ는지…….
저놈 하는 모양 좀 보라. 나중에 뭐가 될라고 그러는지…….

용호어멍 : 게메마씸. 나도 걱정이 커마씸.
(그러게요. 저도 걱정이 커요.)

용호아방 : 용호야 자꾸 '꾸물락꾸물락' 홀거냐? 해가 중천인디 아직도 정ᄒᆞ고 잇네.
(용호야! 자꾸 꾸물꾸물 할 거냐?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네.)

용호어멍 : 용호야! ᄒᆞᄀᆞᆫ 서둘르라. 해 ᄆᆞᆫ 지키여.
(용호야! 좀 서둘러라. 해 다 지겠다.)
용호 : 예 예 감수다. 보체지맙써.
네 네 갑니다. 보채지마세요.

<해설>
느린 움직임으로 이리 꾸물 저리 꾸물 하는 모양으로 일을 시킨 일을 바로 하지 않거나 하기 싫어 늑장을 부리는 모양을 말한다.

<낱말 알아보기>
꾸물락꾸물락: 꾸물꾸물
멕이다: 먹이다.
경 ᄒᆞ고: 그리고
촐: 꼴
놋씻다: 세수하다
쉐: 소

◎ 거들락거들락

김씨 할아버지 : 문덜 애기 들어시냐? 이번에 민수 아버지가 승진시험에 합격헷젠, 아주 어려운 건데.
(다들 이야기 들었는가? 이번에 민수아버지가 승진시험에 합격했다며, 아주 어려운 것인데.)

이씨 할아버지 : 아! 들어서 나도. 그거 백 명에 혼 명 될까 말까 ᄒᆞ는 시험이엔 ᄒᆞ연게 민수아버지가 똑똑혼게.
(아! 들었네 나도. 그거 백 명에 한 명 될까 말까 하는 시험이라고 하던데 민수아버지가 똑똑하네.)

최씨 할아버지 : 경 혼디 승진헷젠 여기저기서 거들락거렴젠 ᄒᆞ는 소문이 자자헨게, 아 저디 민수아버지 왐신게 저 걸음걸이 ᄒᆞ곤…….
(그런데 승진했다고 여기저기서 거들먹거린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 저기 민수아버지 오네 저 걸음걸이 하곤…….)

민수아방 : 아이고 할아버지덜 안녕ᄒᆞ시우꽈? 문들 건강ᄒᆞ시꽈? 이 더운디 더위 들게 밖겯듸 나왕 이수광? 시원혼 점방에서 차라도 드시멍 애기덜 ᄒᆞᆸ써.
(아이고 할아버지들 안녕하셨습니까? 다들 건강하시고? 이 더운데 더위 드시게 밖에 나와 계십니까? 시원한 가게에서 차라도 드시면서 이야기들 하시지)

김씨 할아버지 : 민수아버지 이번에 승진시험 합격혼 거 축하ᄒᆞ네. 어려운 시험이엔 헨게. 용ᄒᆞ네 용헤.
(민수아버지 이번에 승진시험 합격한 것 축하하네. 어려운 시험이라는데 용하네 용해.)

민수아방 : 아……. 시험마씸? 어렵다는 건 뭐 능력 어신 사름덜 말마씸. 난 보통 실력으로 헤도 될 거라. 더운디 난 문저 들어가젠 헴수다.

문덜 시원흔 디로 갑써. 할아버지덜 더위 먹으쿠다. 난 가쿠다.
(아…….시험이요? 어렵다는 건 뭐 능력 없는 사람들 말이고요. 저는 보통 실력으로 해도 될 거라. 더운데 저는 먼저 들어가렵니다. 다들 시원한데로 가세요. 할아버지들 더위 먹겠어요. 저는 갑니다.)

최씨 할아버지 : 저! 저! '거들락거들락' ᄒᆞ는 꼴 좀 보게! 사롬이 겸손ᄒᆞ지 못ᄒᆞ고.
(저! 저! '거들락거들락' 하는 꼴 좀 보게!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이씨 할아버지 : 눈꼴 사나왕 못 봐주키여. 꺼덕꺼덕 거드름 피우는 게.
(눈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어. 꺼떡꺼떡 거드름 피우는 게.)

<해설>
'거들락거들락'은 거만스럽게 잘난 체 하며 자꾸 버릇없이 구는 모양을 나타낸 의태어이다. 지역에 따라 '거드럭거드럭', '거들거들' 등으로 쓰인다.

<낱말 알아보기>
거들락거들락 : 거만스럽게 잘난 체 하며 자꾸 버릇없이 구는 모양.
문덜: 다들 거들락거렴젠: 거들먹거린다는
먹으쿠다: 먹겠어요 사나왕: 사나워서

◎ 는닥는닥(는적는적)

선생님 : 오널 가정시간 실습은 이것으로 ᄆᆞ치키여. 이제 뒷정리 ᄒᆞ라. 자신이 요리헷던 주변을 잘 정돈ᄒᆞ기 바래키여.
(오늘 가정시간 실습은 이것으로 마치겠어요. 이제 뒷정리를 합시다. 자신이 요리했던 주변을 잘 정돈하기 바랍니다.)

학생들 : 예, 선생님.
(네, 선생님.)

선생님 : 내가 지나가멍 정리 상태를 확인하고 통과된 조는 교실로 돌아가도 좋아.
(내가 지나가면서 정리 상태를 확인하고 통과된 조는 교실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학생들 : 와! 하하하…….
(와! 하하하…….)

선생님 : 무신 일이고?
(무슨 일이니?)

소희 : 선생님, 유진이가 걸어가단 넘어져서마씸.
(선생님, 유진이가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유진 : 지나가단 미끄로완 넘어져서마씸.
(지나가다가 미끄러워서 넘어졌어요.)

선생님 : 유진아! 괜찮으냐? 어디 보게. 아픈 디는 어시냐? 다행이여! 어디서 경 ᄒᆞᆫ 거냐? 여긔냐? 아이고 이 년석덜이 여긔 '는작는작' ᄒᆞᆫ 거 좀 봐라. 지름이영 설탕이영 ᄆᆞᆫ 떨어젼 끈작ᄒᆞ고 메끈거리곡 여귄 따시 청소헤사키여. 여긔 맡은 조가 어디고?
(유진아! 괜찮으니? 어디 보자. 아픈 데는 없고? 다행이구나! 어디서 그런 거니? 여기야? 아이고 이 녀석들이 여기 '는닥는닥' 한 것 좀 봐라. 기름이며 설탕이며 다 떨어져서 끈끈하고 미끈거리고 여기는 다시 청소해야겠다. 여기 맡은 조가 어디였니?)

학생들 : 3조우다. 명희네 조마씸.
(3조에요. 명희네 조에요.)

선생님 : 명희야! 여긔 뚜시 닦아사키여. 청소 따시 ᄒᆞ고 검사 맡앙 가도록 헤 알아시냐?
(명희야! 여기 다시 닦아야겠다. 청소 다시 하고 검사 맡고 가도록 해 알았지?)

명희 : 예, 알아수다. 죄송ᄒᆞ우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해설>
'는닥는닥'의 표준어는 '는적는적'이며, 기름 따위가 묻어 끈적끈적하거나 미끌미끌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지역에 따라 '는작는작', '는달는달', '문달문달' 등으로 쓰인다.

<낱말 알아보기>
는닥는닥: 는적는적
넘어져서마씸: 넘어졌어요
문: 다
ᄆᆞ치다: 마치다
끈작ᄒᆞ다: 끈적하다
여긔: 여기

◎ 느랏느랏

선생님 : 김영식 또 졸암시냐?
(김영식 또 졸고 있냐?)

영식 : 아니우다. 선생님 나 졸지 안헴수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 졸지 않았어요.)

선생님 : 무사 눈 반은 감고, 축 처져 이신고? 다덜 밥도 못 먹은 년석덜추룩 축 처져 이신게.
(왜 눈 반은 감고, 축 처져 있는가? 다들 밥도 못 먹은 녀석들처럼 축 처져 있다.)

학생들 : 선생님! 너무 덥수다. 몸이 '느랏느랏'ᄒᆞᆫ 게 오널 수업 받지 못ᄒᆞ쿠다.
(선생님! 너무 더워요. 몸이 '느랏느랏'한 게 오늘 수업 받지 못하겠어요.)

선생님 : 이 년석덜. 경 ᄒᆞ민 뭐 ᄌᆞ미난 거 헤보카?
(이 녀석들. 그럼 뭐 재미난 거 해볼까?)

학생들 : 영화보게마씸. 노래ᄒᆞ게마씸. 축구ᄒᆞ게마씸.
(영화봐요. 노래해요. 축구해요.)

선생님 : 아까는 다 죽어가던 놈덜이 금방 살아나신게. 이 상태로 바로 수업 들어가키여.
(아까는 다 죽어가던 놈들이 금방 살아났구나. 이 상태로 바로 수업 들어가자.)

학생들 : 아! 뭐꽈? 너무 헴수다. 이 더운 날에.
(아! 뭐에요? 너무 해요. 이 더운 날에.)

선생님 : 여름엔 더위에 지치고, 의욕도 안 생기난 정신이 확 들도록 무서운

애길 헤 주주. 애기 들엉 따시 수업ᄒᆞ는 거다. 알아시냐?
(여름에는 더위에 지치고 의욕도 안 생기니 정신이 확 들도록 무서운 이야기를 해 주지. 이야기 듣고 다시 수업하는 거다. 알았지?)

학생들 : 선생님 알아수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해설>
느랏느랏 : 장어같이 힘 있고, 활발한 것들이 힘없이 축 처져 이리저리 흐믈흐믈 하는 모양을 말한다. 또한 몹시 늑장을 부리며 힘없이 축 처진 상태를 말한다. 비슷한 표현으로 'ᄂᆞ릇ᄂᆞ릇, ᄂᆞ롯ᄂᆞ롯'이 있다.

<낱말 알아보기>
느랏느랏: 힘이 빠져서 나른히 늘어진 모양.
무사: 왜 ᄀᆞᆷ다: 감다
다덜: 다들 덥수다: 더워요
ᄌᆞ미: 재미 못 ᄒᆞ쿠다: 못 하겠어요

◎ 금착금착(깜짝깜짝)

민수 : 오널 영화 어떵헤냐?
(오늘 영화 어땠어?)

영희 : 난 귀신이 뒤에서 주인공 할아버질 더풀 뗀 눈떵 볼 수 어성 눈 감앙 소리만 들엇쩌.
(나는 귀신이 뒤에서 주인공 할아버지를 덮을 때는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눈 감고 소리만 들었어.)

민수 : 하영 놀라시냐? 이 영화가 중간 중간 경 가슴 철렁ᄒᆞ게 하는 장면이 하영 잇다고 ᄒᆞ영게.
(많이 놀랐지? 이 영화가 중간 중간 그렇게 가슴 철렁이는 장면이 많다고 하더라고.)

영희 : 공포영화는 무사 경 사롬덜 놀레게 ᄒᆞ는 장면이 하영 이신지 모르키여. 특히 이 영화는 보는 내내‘ 금착금착’ᄒᆞ게…….
(공포영화는 왜 그렇게 사람들 놀라게 하는 장면이 많은지 모르겠어. 특히 이 영화는 보는 내내 깜짝깜짝하게…….)

민수 : 하하하 경 ᄒᆞ연? 경 ᄒᆞ민 이 영화 멩근 사롬은 잘 멘든 게 뒈는 거 아니가?
(하하하 그래? 그러면 이 영화 만든 사람은 잘 만든 게 되는 거 아닌가?)

영희 : 경 ᄒᆞᆫ가? 경 헤도 너무 무서웡 가슴 철렁ᄒᆞ는 순간덜이 하영 이성 아이덜 보민 안 뒐 거 ᄀᆞ타.
(그런가? 그래도 너무 무섭고 가슴 철렁하는 순간들이 많아서 아이들은 보면 안 될 것 같아.)

<해설>

‘금착금착’의 표준어는 ‘깜짝깜짝’이며, 깜짝 놀라 가슴이 철렁한 상태를 이르는 말로 가슴이 덜컹하여 크게 놀란 상태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 ‘금칠락 금칠락’으로도 쓰인다.

<낱말 알아보기>

금착금착: 깜짝깜짝
모르키여: 모르겠어
ᄀᆞ트다: 같다
사ᄅᆞᆷ덜: 사람들
멩근: 만든
더프다: 덮다

◎ 노긋노긋(노곤하다)

영희 : 엄마! 몸 좀 펜찮으꽈?
(엄마! 몸 좀 괜찮으세요?)

영희 어멍 : 어제 저녁부터 몸이 '노긋노긋'ᄒᆞ더니 밤새 ᄒᆞᆫ줌도 못장 아주 죽을 지경이여. 영희야! 강 약 좀 상 오라.
(어제 저녁부터 몸이 '노곤노곤'하더니 밤새 한잠도 못자고 아주 죽을 지경이다. 영희야! 가서 약 좀 사 오거라.)

영희 : 예, 엄마.
(예, 엄마.)

약사 : 어디 아프꽈?
(어디 아프세요?)

영희 : 엄마가 아프덴 헴수다. 몸이 '노긋노긋' ᄒᆞ고양, 지침도 하영 남쩬 헙디다. 기운도 어성 일어날 심도 업덴 헙디다.
(엄마가 아프신데요. 몸이 '노곤노곤' 하시구요, 기침도 많이 나신데요. 기운도 없으셔서 일어나실 힘도 없다고 하시거든요.)

약사 : 날이 덥단 추워젼 감기몸살이 난 거 ᄀᆞ트우다. 처방헤 드리쿠다. ᄒᆞ루 세 번 들고 밥 먹은 뒤에 들라고 헙서.
(날이 덥다가 추워져서 감기몸살이 나신 것 같은데요.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세 번 드시고 식후에 드시라고 하세요.)

영희 : 네, 알쿠우다.
(네, 알겠습니다.)

<해설>
노긋노긋은 힘이 빠지거나 열감기에 오한이 나면서 뼈마디가 쑤시어 잦아들다. 주로 몸이 아프고 삭신이 쑤실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ᄂᆞ긋ᄂᆞ긋하다는 표현으로 쓰인다.

<낱말 알아보기>

노긋노긋:
심: 힘
상: 사서
혼줌: 한잠
ᄀᆞ트다: 같다
알쿠우다: 알겠습니다

◎ ᄁᆞ막ᄁᆞ막(ᄁᆞ먹ᄁᆞ먹)

선생님 : 만철이 잠시냐?
(민철이 자냐?)

학생들 : 민철이 자고 잇수다. 민철아! 일어나, 선생님안티 자는 거 걸렷다.
(민철이 자고 있어요. 민철아! 일어나, 선생님한테 자는 거 들켰다.)

선생님 : 민철이 1번 문제 답이 무신건지 말ᄀᆞᆯ아보라.
(민철이 1번 문제 답이 뭔지 말해봐라.)

민철 : 잘 모르쿠다. 죄송ᄒᆞ우다.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 요 년석 자단 일어나난 알 리가 잇나. 지금도 줌이 덜 깨어 정신 못 ᄎᆞ리곡 눈만 'ᄁᆞ막ᄁᆞ막' ᄒᆞ는 거 좀 보라. 밖겯디 나강 놋싯고 와.
(요 녀석 자다 일어났으니 알 리가 있나. 지금도 잠이 덜 깨서 정신 못 차리고 눈만 'ᄁᆞ먹ᄁᆞ먹' 하는 것 좀 봐라. 밖에 나가서 세수하고 와.)

민철 : 네, 죄송ᄒᆞ우다.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 민철이 뿐만 아니라, 반은 졸단 정신엇이 눈만 'ᄁᆞ막ᄁᆞ막'ᄒᆞ고 잇는 놈덜. 정신 ᄎᆞ리고 수업 집중헤. 알아시냐?
(민철이 뿐만 아니라, 반은 졸다가 정신없이 눈만 'ᄁᆞ먹ᄁᆞ먹'하고 있는 놈들. 정신 차리고 수업 집중해. 알았지?)

학생들 : 네, 선생님.
(네, 선생님.)

<해설>
끄막끄막은 주로 눈을 감았다 떳다 하며 깜빡거리는 모양으로 두려움에 가슴을 조이면서 깜빡거리는 모양이다. 까막까막, 끄막끄막, 끄먹끄먹, 끔막끔막의 작은 말이다.

<낱말 알아보기>

끄막끄막: 끄먹끄먹
츠리다: 차리다
정신엇이: 정신없이
말골아보라: 말해봐라
나강: 나가서
좀: 잠

◎ 꼬블락꼬블락(꼬불꼬불)

#1 영희엄마 : 아이고, 순철이 엄마 어디 뎅경와?
(아이고, 순철이 엄마 어디 다녀와?)
순철엄마 : 아, 영희 엄마 나 미용실 뎅경오는 질이주.
(아, 영희 엄마 나 미용실 다녀오는 길이지.)

#2 영희엄마 : 머리헤수광?
(머리했나요?)
순철엄마 : 머리가 자꾸 내려왕 일ᄒᆞ는디 불편ᄒᆞ연마씸.
(머리가 자꾸 내려와서 일하는데 불편하더라고.)

#3 순철엄마 : ᄆᆞ음 내친 짐에 강 빠마 ᄒᆞᆫ 번 헷주.
(맘 내킨 김에 가서 파마 한 번 했지.)
영희엄마 : 곱게 잘 뒈어신게.
(곱게 잘 되었네.)

#4 영희엄마 : 어디서 ᄒᆞᆫ 거지? '꼬블락꼬블락'ᄒᆞ게 잘 뒈엇네.
(어디서 한 거지? '꼬불꼬불'하게 잘 되었네.)
순철엄마 : 순심이네 미용실에서 헤서.
(순심이네 미용실에서 했어.)

#5 순철엄마 : 거기 강 꼬블락ᄒᆞ게 헤둘엔 헤신디 영 헤논 거 잇지?
(거기 가서 꼬뷸하게 해달하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은 거 있지?)
영희엄마 : 고운게마씸.
(곱네 그래.)

#6 순철엄마 : ᄒᆞᆫ 해는 머리 안 헤도 뒈쿠다.
(일 년은 머리 안 해도 되겠어.)
영희엄마 : 게메마씸. 나도 순철이 엄마추룩 험직ᄒᆞ냐?
그러게 말이야, 나도 순철이 엄마처럼 할까봐?

#7 순철엄마 : 영희 엄마도 ‘꼬블락꼬블락’ᄒᆞ게 ᄒᆞᆫ 번 헤.
(영희 엄마도 ‘꼬불꼬불’하게 한 번 해.)
영희엄마 : 나도 오널 가봐사키여.
(나도 오늘 가봐야겠어.)

#8 영희엄마 : 지금 집이 강 아기덜 밥 출려주고 가봐사키여.
(지금 집에 가서 애들 밥 차려주고 가봐야지.)
순철엄마 : 영희 엄마도 나추룩 ‘꼬블락꼬블락’ᄒᆞ게 헤ᄃᆞ렌 헤.
(영희 엄마도 나처럼 ‘꼬불꼬불’하게 해달라고 해.)

<해설>
‘꼬블락꼬블락’은 머리모양 혹은 면발이 꼬블꼬블하게 엉킨 모양을 말한다. 가령 ‘국수 면발이 ’꼬블락꼬블락‘ 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면발이 꼬불꼬불하게 엉켜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슷한 표현으로 꼬글꼬글, 꼬글락꼬글락이 있다.

<낱말 알아보기>
꼬블락꼬블락: 꼬불꼬불
영: 이렇게
ᄒᆞᆫ 해: 일 년
강: 가서
나추룩: 나처럼
출리다: 차리다

◎다글-다글(다글락-다글락)

-정지에 있는 살레에서 다글락 다글락 소리가 난다
(부엌에 있는 찬장에서 다글다글 소리가 난다.)

철수 어멍: 철수야, 정지에서 다글다글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고?
철수야, 부엌에서 다글다글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이냐?

철수: 게메마씸, 무슨 소린지 정지에 가보카마씸?
그러게 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부엌에 가 봅니까?

철수 어멍: 혼 번 가보라. 아멩 헤도 이상혼 소린게.
한 번 가보렴. 아무리 해도 이상한 소리이구나.

철수: (정지로 간다) 이상혼 게 마씸. 낭푼이 그릇이 넘어져 잇수다. 중이가 왓다 간 거 담수다. 중이가 무신 거 먹을 거 이싱가 ᄒᆞ연 낭푼이를 다글다글 글거난 모양이우다.
(부엌으로 간다) 이상하네요. 양은 그릇이 넘어져 있어요. 쥐가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쥐가 뭐 먹을 것 있는가 하여 양은 그릇을 다글다글 긁었던 모양입니다.

<삽화>

<해설>
곧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서툴지만 빨리 걸어가는 모양, 물건이 굴러가는 모습, 물건이 서로 부딪쳐서 나는 소리 등을 나타낸다. 그 밖의 예문으로 '제법 다글다글 걷기 시작헴서라'(제법 다글다글 걷기 시작하고 있더라), '상방에서 다글다글 둥구럼서라'(마루에서 다글다글 굴리고 있더라) 등이 있다.

<낱말 알아보기>

살레: 찬장 모양으로 간략히 짜서 부엌 안에 세워 놓고 식기 따위를 넣는 물건.
정지: 부엌
낭푼이: 양은 그릇,
양은: 구리, 아연, 니켈 따위를 합금하여 만든 금속. 빛이 희고 녹슬지 않으며 상온에서 가공하기 쉬워서 식기나 장식품을 만드는 데 많이 쓴다.

◎ 다닥-다닥 (다닥-다닥)

삼돌: 순돌아, 우리 바당에 괴기 낙으레 가게.
(순돌아, 우리 바다에 고기 낚으러 가자.)

순돌: 물 싸민 보말도 잡곡 헐건디. 괴기 낙으젠 ᄒᆞ민 니껍이 이서야 홀 거 아니라?
(바닷물이 썰물이 되면 고둥도 잡고 할 것인데. 고기 낚으려고 하면 미끼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삼돌: 물 싸시난 게수리 팡 가게. 보말도 이시민 잡곡.
(바닷물이 썰물이 되었으니 갯지렁이를 파서 잡고 가자. 고둥도 있으면 잡고.)
순돌: 경 ᄒᆞᆫ디 물 싸난 돌에 군벗이 다닥다닥 붙어신게.
(그런데 썰물이 되니 돌에 군벗이 다닥다닥 붙어 있네.)

삼돌: 군벗이랑 굴도 다닥다닥 붙어신디 굴 땅 먹게. 군벗은 먹어볼게 엇주만 굴은 껍질 속에 맛 좋은 굴이 이신디 그거 파 먹게.
(군벗이랑 굴도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굴 따서 먹자. 군벗은 먹어 볼 이 없지만 굴은 껍질 속에 맛 좋은 굴이 있는데 그것을 파서 먹자.)

순돌: 게수리는 안 잡곡 굴만 먹을거?
(갯지렁이는 안 잡고 굴만 먹을거니?)

삼돌: 아니, 굴 먹은 다음에 게수리 잡앙 괴기 낙으레 가게.
(아니, 굴 먹은 다음에 갯지렁이 잡아서 고기 낚으러 가자.)

<해설>
자그마한 것들이 한 곳에 많이 붙어 있는 모양이나 보기 흉할 정도로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기운 모양을 말한다.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기운 모양을 말

하는 예문으로 ‘옛날사 사름마다 문 옷을 다닥다닥 주우멍 입엇주.’(옛날이야 사람마다 모두 옷을 다닥다닥 기우면서 입었지.)가 있다.

<낱말 알아보기>
괴기: 고기, 제주어만 전설모음화 현상이 나타난 경우임.
게수리: 게우리, 지렁이

◎ 다락-다락(다륵-다륵, 주렁-주렁)

돌이: 올 헨 ᄇᆞ롬 세게 불고 비가 하영 와 부난 숭키랑 과실이 잘 안되엇덴 헴서.
(올 해는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많이 와서 온갖 나물이랑 과일이 잘 안되었다고 하는구나.)

멩이: 게메이, 숭키 사 먹젠 헤신디 너무 비싸부난 사 먹지 못허크라. 이 노릇을 어떵ᄒᆞ영 조을거라.
(글쎄, 채소를 사서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사서 먹지 못하겠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돌이: 비싸도 식게 멩질 ᄒᆞ젠 ᄒᆞ민 과실이랑 숭키를 사야 홀건디 어떵 홀거라? 과실 금지가 괴기 금지보다 비싸니 어떵 홀거라?
(비싸도 제사 명절 하려고 하면 과일이랑 채소를 사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일 값이 고기 값보다 비싸니 어떻게 할 것이냐?)

멩이: 경 헤도 사사주. 무슨 일이 잇어도 식게 멩질은 잘 ᄎᆞ려야주. 경 안 ᄒᆞ민 일가 친척들에게 욕 먹으메. 식게 멩질 ᄒᆞ멍 돈 애껌덴.
(그렇더라도 사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 명절은 잘 차려야 해. 그렇게 안 하면 일가 친척들에게 욕을 먹는다. 제사 명절 하면서 돈을 애낀다고.)

돌이: 밀감이라도 다륵다륵 ᄋᆞ랑 풀아지민 조켜마는. 경 ᄒᆞ고 밀감은 안 사도 되난 다행인게.
(밀감이라도 주렁주렁 열어서 팔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밀감은 안 사도 되니 다행이다.)

<해설>
1) 힘을 내서 던지는 모양. (담돌로 다락다락 쏘아 버려라.)
(돌멩이로 다락다락 쏘아 버려라.)
2) 주렁-주렁. 열매 따위가 많이 열어 빽빽하게 달린 모양.(=지랑-지랑)
3) 열매 따위가 마구 떨어지는 모양.(=다륵다륵)

ᄇᆞ름 불민 낭 ᄋᆞᆯ매가 다락다락 털어진다.
(바람 불면 나무 열매가 다락다락 떨어진다.)

<낱말 알아보기>
하영: 많이
숭키: 푸성귀, 국도 끓이고쌈도 싸 먹는 온갖 나물
식게: 제사
멩질: 명절

◎ 닥닥

겨울이: 아이구 추웡 죽어지켜. 어디 뜨뚯혼 디 어신가?
(아이고 추워서 죽겠네. 어디 따뜻한 곳 없는가?)

여름이: 난 더웡 죽어지켜. 어디 시원혼 낭 그늘 어신가?
(난 더위서 죽겠네. 어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없는가?)

겨울이: 베껫듸서 닥닥 털당 보난 뜨뚯혼 구들이 생각남저.
(밖에서 덜덜 떨다 보니 따뜻한 방이 생각난다.)

여름이: 나도 어디 시원한 낭 그늘에서 닥닥 털멍 살아시면 조으켜.
(나도 어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덜덜 털멍 살았으면 좋겠다.)

겨울이: 사람 ᄆᆞ슴은 참 변덕스러운 거라이. 추우면 구들 생각나곡, 더우면 낭 그늘 생각나곡.
(사람 마음이 참 변덕스러운 것이네. 추우면 방 생각나고, 더우면 나무 그늘 생각난다.)

여름이: 홀 수 엇주기. 춥곡 덥곡 ᄒᆞ난 살 맛이 나는 거주게. 죽장 덥기만 ᄒᆞ면 답답ᄒᆞ영 살지를 못 홀 거여. 봄, 녀름, ᄀᆞ슬, 겨슬 ᄉᆞ계절이 있으니 삶이 지루ᄒᆞ지 않은 거주게.
(할 수 없지. 춥고 덥고 하니 살 맛이 나는 것이다. 늘 덥기만 하면 답답해서 살지를 못 할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으니 삶이 지루하지 않은 것이다.)

<해설>

덜덜, 춥거나 무서워서 몸을 몹시 떠는 모양이나 뚝뚝, 물이 연이어 떨어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말함

<낱말 알아보기>

낭: 나무
베껫: 바깥, 밖
ᄆᆞ슴: ᄆᆞ심, 마음
구들: 방, 고래를 켜고 구들장을 덮어 흙을 발라서 방바닥을 만들고 불을 때어 난방을 하는 구조물.

◎ 달달

순덱이: 삼돌아, 우리 소꼽장난 ᄒᆞ게. 느랑 아방 ᄒᆞ고 난 어멍 ᄒᆞ고. 배게로 애기ᄒᆞ고.
삼돌아, 우리 소꼽장난 하게. 너랑 아버지 하고, 나는 어머니 하고. 베게로 애기하고.

삼돌이: 무슨 소꼽장난 ᄒᆞ젠? 애기ᄒᆞ고 같이 밥 먹는 놀이 ᄒᆞ카. 나가 아방이난 난 ᄀᆞ만이 이시커라. 이녁이 밥상 차리고 애기 먹을 거랑 준비ᄒᆞ라.
(무슨 소꼽장난 하려고? 애기하고 같이 밥 먹는 놀이 할까? 내가 아버지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게. 당신이 밥상 차리고 애기 먹을 것을 준비해라.)

순덱이: 경 ᄒᆞ주게. 밥상 차려시난 밥 먹읍서. 국이랑 반찬이랑 가리지 말앙 먹읍서양.
(그렇게 할게. 밥상 차렸으니 밥 먹어요. 국이랑 반찬이랑 가리지 말고 먹어요, 네.)

삼돌이: 잘 먹으크라. 애기 울엄신디, 애기는 무신거 멕이젠?
(잘 먹겠네. 애기 울고 있는데, 애기는 무엇을 먹이려고?)

순덱이: 애기 먹을 거 어서부난 젖 먹이젠 헴수다. 경 혼디 아방마씀, 무사 밥 먹으멍 달달 흘렴수가? 설룬 애기도 아니고 작산어른이 무사 경 헴수가? 달달 흘리지 말앙 ᄏᆞᆯᄒᆞ게 먹읍서.
(애기 먹을 것 없어서 젖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보, 왜 밥 먹으면서 달달 흘리고 있습니까? 서럽고 불쌍한 애기도 아니고 큰 어른이 왜 그렇게 합니까? 달달 흘리지 말고 깨끗하게 먹어요.)

삼돌이: 알앗져.
(알았다.)

<해설>
곡식 알갱이나 물 따위가 흘려서 떨어지는 모양을 말함.
밥 달달 흘리지 말앙 먹으라.
(밥 달달 흘리지 말고 먹어라.)

<낱말 알아보기>
ᄀᆞ만이: 가만히
작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의 뜻을 가진 접두사
설룬애기: 서럽고 불쌍한 애기
ᄏᆞᆯᄒᆞ다: 깨끗하다.

◎ 대군-대군(=데군-데군, 자근-자근)

영희: 하르바님, 어디 가셤수강?
(할아버님, 어디 가십니까?)

하르방: 외방 갓다 오젠 헴저. 외방 갓당 오일장에 들렁 장구경ᄒᆞ당 오젠.
(외출 갔다 오려고 한다. 외출 갔다가 오일장에 들러서 장 구경하다가 오려고.)

영희: 나도 ᄀᆞ치 가게마씀?
(나도 같이 가려구요?)

하르방: 경 ᄒᆞ라.
(그렇게 하라.)

영희: 아이구, 조아라. 하르바님이영 가난 너무 조은게 마씸.
(아아고, 좋아라. 할아버님이랑 가나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르방: 나영 가멍 동네 어룬들 만나면 인사 잘 ᄒᆞ라.
(나하고 가면서 동네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 하라.)

영희: 네 알앗수다.
(네 알겠습니다.)

하르방: 어룬들이 무신거 물어보걸랑 고분고분 대답ᄒᆞ라. 경 아니 ᄒᆞ영 어룬신디 대군대군 대답햇당그네 나ᄒᆞᆫ테 혼날 줄 알라이.
(어른들이 무엇을 물어보거든 고분고분하게 대답하라. 그렇게 아니하고 어른에게 대군대군 대답했다가는 나에게 혼날 줄 알아라.)

영희: 네, 알앗수다.
(네, 알겠습니다.)

<해설>
말하는 족족 대꾸하는 모습.
어룬신딘 대군대군 말대답 ᄒᆞ지 말라.(어른한테는 자근자근 말대꾸하지 마라.)

<낱말 알아보기>
외방: 외출
경: 그렇게

◎ 대작-대작(데작-데작, 닥지-닥지, 덕지-덕지)

똘이: 어머니, 학교 갓당 왐수다. 뭐 헴수가?
(어머니, 학교 다녀 왔습니다. 뭐 합니까?)

똘이 어멍: 응, 안방 벽이 더러운 거 달망 벽지 볼람저.
(응, 안방 벽이 더러운 것 같아서 벽지 바르고 있다.)

똘이: 어머니, 저도 도와주카마씀?
(어머니, 저도 도와드립니까?)

똘이 어멍: 경 ᄒᆞ라.
(그렇게 하라.)

똘이: 이거 풀칠ᄒᆞ민 되쿠가?
(이것을 풀칠하면 되겠습니까?)

똘이 어멍: 응, 느가 풀칠ᄒᆞ영 주면 내가 ᄇᆞ르마.
(응, 네가 풀칠하여 주면 내가 바르마.)

똘이: 알앗수다.
(알았습니다.)

똘이어멍: 똘이야, 벽지에 풀을 너미 대작대작 볼람저. 벽에 ᄇᆞ르단 보난 풀기가 너무 세어 울퉁불퉁 보기가 실은게.
(똘이야, 벽지에 풀을 너무 대작대작 바르고 있다. 벽에 바르다가 보니 풀기가 너무 세어 울퉁불퉁 보기가 싫다.)

똘이: 알앗수다. 적당히 풀을 ᄇᆞ르쿠다.
(알았습니다. 적당히 풀을 바르겠습니다.)

<해설>
풀이나 액체 따위가 심하게 칠해져 있는 모습이나 열매 따위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모습을 말함.
예문: 테가 대작대작 부튼 옷 입엇어라.
(때가 덕지덕지 붙은 옷을 입었더라.)
종이에 풀을 너미 대작대작 볼랏저
(종이에 풀을 너무 대작대작 발랐다.)
낭가쟁이가 거꺼지게 대작대작 올앗어라.
(나무가지가 꺾어지게 주렁주렁 열었더라.)(=자락-자락, 지락-지락)

<낱말 알아보기>
ᄇᆞ르다: 바르다, 풀을 바르다(풀칠하다)
낭가쟁이: 나뭇가지
테(떼): 때, 옷이나 몸 따위에 묻은 더러운 먼지 따위의 물질. 또는 피부의 분비물과 먼지 따위가 섞이어 생긴 것.

◎ 들싹-들싹(들삭-들삭, 들먹-들먹)

신명이: 오늘 우리 마을 경로당에서 노인네들을 위ᄒᆞᆫ 잔치를 열엄덴 ᄒᆞ여라.
(오늘 우리 마을 경로당에서 노인네들을 위한 잔치를 열고 있다고 한다.)

나들이: 응, 나도 들언. 무신거 ᄒᆞ는지 우리도 강 보카?
(응, 나도 들었어. 무엇을 하는지 우리도 가서 볼까?)

신명이: 기여, ᄒᆞᆫ 번 강 봥, 우리도 ᄌᆞ미있게 놀아보게.
(그래, 한 번 가서 보고, 우리도 재미있게 놀아보게.)

(경로당)
나들이: 야, 굉장ᄒᆞ다. 할망 할으방덜 궁뎅이가 들싹들싹 헴신게.
(양, 굉장하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고 있네.)

신명이: 나도 어깨가 인칙부터 들싹들싹 헴저.
(나도 어깨가 벌써부터 들석들석 하네.)

나들이: 할망 할으방덜이영 ᄀᆞ치 놀아보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놀아보자.)

신명이: 경 ᄒᆞ주.
(그렇게 하자.)

<해설>
어깨 따위가 가볍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모양.
들굽을 먹으믄 들싹들싹(두릅을 먹으면 들썩들썩)

<낱말 알아보기>
즈미: 재미,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인측: =인칙, 일찍
들굽: 드릅

◎ 멘들-멘들(멘질-멘질, 민질-민질)

멘죽이: 민질아, 오늘 무사 학교 늦언?
(민질아, 오늘 왜 학교에 늦었니?)

민질이: 학교 오단 갑자기 수행평가 과제물 오늘ᄁᆞ정 제출해야 ᄒᆞ는 걸 잊어부런게. 경 ᄒᆞ연 ᄯᅳ시 집에 강 과제물 가져 오당 보난 늦어부런게.
(학교 오다가 갑자기 수행평가 과제물을 오늘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과제물 가져오다 보니 늦어버렸어.)

멘죽이: 나도 어제 늦게ᄁᆞ지 게임ᄒᆞ단 ᄇᆞ난 늦잠 잔 늦어부런.
(나도 어제 늦게까지 게임하다가 보니 늦잠 자서 늦어버렸어.)

민질이: 담임선생님이 벌칙으로 오늘 청소 당번이나 화장실 바닥 멘들멘들ᄒᆞ게 닥아노렌.
(담임선생님이 벌칙으로 오늘 청소 당번이니까 화장실 바닥 매끈매끈하게 닦아 놓으라고 했어.)

멘죽이: 아이구, 오늘 죽었네. 화장실 물청소혼 후제 걸레 빨앙 ᄋᆞ라 번 닥아야 허켜.
(아이고, 오늘 죽었네. 화장실 물청소한 후에 걸레 빨에서 여러 번 닦아야 하겠네.)

민질이: 하여간 멘들멘들ᄒᆞ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 주켄 헴서.
하여간 매끈매끈하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 주겠다고 하네.

<해설>
거칠지 아니하고 반드러운 모양. 매끈-매끈.

나 머린 멘들멘들
(내 머리는 매끈매끈)
멜순 먹으믄 멘질멘질.
(밀나물 먹으면 매끈매끈)

<낱말 알아보기>
뜩시: 다시
후제: 후에
멜순: 밀나물

◎ 멜록-멜록

가람이: 순돌아, 방과 후에 집에 가단 무슨 일 이서난?
(순돌아, 방과 후에 집에 가다가 무슨 일 있었니?)

순돌이: 무슨 일이라니? 뭔 일 어서나신디.
(무슨 일이라니? 뭔 일 없었는데.)

가람이: 느가 어제 질레서 어떤 아주방안테 욕들엄서렌 ᄒᆞ여라.
(너가 어제 길에서 어떤 아저씨에게 욕들고 있다고 하여라.)

순돌이: 아, 그거. 장난으로 세 **멜록멜록**ᄒᆞ엿단 욕들언게.
(아, 그거. 장난으로 혀 **멜록멜록**하였다가 욕들었어.)

가람이: 무사 욕들언?
(왜 욕들었니?)

순돌이: 어떤 아주방이 차 탕 가당 내가 질 건넘시난 빵빵 하길레, 지나가멍 세 멜록멜록 햇주게. 경 ᄒᆞ난 차에서 내련게마는 나한테 욕ᄒᆞ는 거 아니? 경 ᄒᆞ연 죄송ᄒᆞ덴 골앗저.
(어떤 아저씨가 차 타고 가다가 내가 길 건너고 있으니까 빵빵 하길래, 지나가면서 혀를 멜록멜록 하였어.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 가지고 나에게 욕하는 것 아니?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가람이: 그 아주방도 잘 ᄒᆞᆫ 거는 어신게.
(그 아저씨도 잘 한 것은 없구나.)

순돌이: 경 헷주만 나가 잘못해부난 죄송ᄒᆞ덴 ᄀᆞ란.
(그랬지만 내가 잘못했기에 죄송하다고 말했어.)

<해설>
혀 같은 것을 자꾸 내밀고 들이밀고 하는 모양(멜룩-멜룩)

<낱말 알아보기>
질레: 길
아주방: 아저씨
세: 혀
곧다: 말하다

◎ 모록-모록(무륵-무륵)

녹담이: 일출아, 오늘 느네 집에 식게지?
(일출아, 오늘 너네 집에 제사지?)

일출이: 응, 우리 집 식게여. 식게날은 먹어보지 못헤난 떡이랑 과실이랑 먹을 수 이시난 너무 조아게. 경 혼디 식게상에 올렝 식게가 끗나기 전에는 먹을 수 어서부난 니치름이 잘잘 흘렁 못 살켜.
(응, 우리 집 제사여. 제삿날은 먹어보지 못하던 떡이랑 과실이랑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데 제사상에 올려서 제사가 끝나기 전에는 먹을 수 없어서 침이 잘잘 흘러서 못 살겠다.)

녹담이: 경 헤도 제 지넹 파제ᄒᆞ민 먹을 거 하영 이성 조으커라.
(그래도 제 지내서 파제하면 먹을 거 많이 있어서 좋겠다.)

일출이: 응, 식게상에 올려난 곤밥(메)이 정말 먹고 싶어게. 배가 고플 때가 되고 허연 무륵ᄒᆞ게 담겨진 밥를 보면 식욕이 막 돌아.
(응, 제사상에 올렸던 쌀밥이 정말 먹고 싶어. 배가 고플 때가 되었는데 무륵하게 담겨진 밥을 보면 식욕이 막 돌아.)

녹담이: 나도 사발에 무륵무륵 담아진 곤밥을 보면 니치름이 잘잘 낭 꼴깍꼴깍 넘어갈 때가 이섯주.
(나도 사발에 무륵무륵 담겨진 쌀밥을 보면 침이 잘잘 나서 꼴깍꼴깍 넘어갈 때가 있었지.)

일출이: 거기다가 곤밥에 돗괴기랑 솔나니까지 이시민 밥맛이 정말 조추게.
(거기다가 쌀밥에 돼지고기랑 옥돔까지 있으면 밥맛이 정말 좋아.)

녹담이: 아이고, 니치름 넘어감저. 곤떡, 지름떡, 솔벤, ᄇᆞ롬빵도 맛잇주게.
(아이고, 침 넘어가네. 쌀떡, 기름떡, 반달떡, 바람빵도 맛있어.)

일출이: 식게 끗나민 곱졍 나뒷당 가져가커메 내일랑 학교강 ᄀᆞ치 먹게.
(제사 끝나면 숨겨 두었다가 가져갈테니 내일 학교가서 같이 먹자.)

녹담이: 일출아, 정말 고맙다이, 내 친구는 느뿐이여.
(일출아, 정말 고맙다, 내 친구는 너뿐이다.)

<해설>
1) 곤장 따위로 사람의 볼기와 같은 살찐 데를 세게 치는 모양
2) 밥그릇 따위에 밥을 넘칠 정도로 떠 놓은 모양
3) 몸의 여기저기가 포동포동하게 살찐 모양
4) 살이 찌거나 부어 불룩하게 도드라져 있는 모양
5) 쌓이거나 담긴 물건이 불룩한 상태 등 다양하게 쓰임.

<낱말 알아보기>
니치름: 침
솔나니: 옥돔
곱지다: 숨기다

◎ 물락-물락(물랑-물랑)

장면1.
효식이: 할마님, 효식이 왓수다.
할머니, 효식이 왔습니다.
효식이 할망: 아이고, 우리 손지 왓구나. 어서 오라게. 이게 얼마만이고?
아이고, 우리 손자 왔구나. 어서 오라. 이게 얼마만이냐?

장면2.
효식이 할망: 우리 손지 와신디 맛잇는 거 줘사켜.
우리 손자 왔는데 맛있는 것 줘야 하겠네.

효식이: 할마니, 맛잇는 거 무신거 마씨?
할머니, 맛있는 게 무엇입니까?

장면3.
효식이할망: 요자기 곱들학혼 감 따당 괴팡 쏠독에 묻엉 나둬신디 잘 익어실 거여.
요사이 아주 매끈하고 고운 감 따다가 고팡 쌀독에 묻어 나뒀는데 잘 익었을 것이다.
효식이: 감 마씸?
감입니까?

장면4.
효식이 할망: 괴팡 쏠독에서 감을 꺼내면서) 감이 잘 익어신가 어디 보주.
감이 잘 익었는가 어디 보자.

장면5.
효식이 할망:잘 익은 감을 효식이게 주며) 이거 먹어보라. 둘이 먹당 하나 죽어도 모를거여.
(이것 먹어보아라.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것이다.)

효식이: 경 맛 좋수가?
(그렇게 맛 있습니까?)

장면6.
효식이:(감을 먹으며) 감이 물랑물랑ᄒᆞ연 입에서 살살 녹암수다.
(감이 물렁물렁하여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장면7.
효식이:(감을 맛있게 먹으면서) 할마님도 하나 먹어봅서. 정말 할마님이랑 먹당 내가 죽어도 모를 지경이우다.
(할머니도 하나 먹어 보세요. 정말 할머니랑 먹다가 내가 죽어도 모를 지경입니다.)

장면8.
효식이 할망: (감을 맛잇게 먹으며) 정말 경 혼게이. 물랑물랑혼 게 이 어신 나가 먹기에 딱 좋다.
(정말 그렇구나. 물렁물렁한 것이 이가 없는 내가 먹기에 딱 좋구나.)

<해설>
물건이 딴딴하지 못하여 물렁물렁한 모양이나 물렁물렁한 음식물을 입에 넣고 되씹는 모양을 말한다. 물랑-물랑(=물렁-물렁)

<낱말 알아보기>
요자기: 요사이 어느 때에
곱들락ᄒᆞ다: 아주 매끈하고 곱다

◎ 보글락보글락 : 보글보글

장면: 겨울방학에 난로 위의 주전자의 물이 끓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대화장면

김선생 : 이선생님. 오늘은 정말 춥다 예.
(이선생님. 오늘은 정말 춥네요.)
이선생 : 게메. 이번 겨울은 벨나게 춥다 게.
(그러게.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네.)
김선생 : 우리 오늘 점심 뭐 먹으카마씀?
(우리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이선생 : 주전지에 물이 **보글락보글락** 끓엄시난 라면 생각 남져.
(주전자에 물이 보글락보글락 끓고 있어서 라면 생각 나네.)
김선생 : 게민 라면 먹으카 마씀.
(그러면 라면 먹을까요?)
이선생 : 집에서도 잘 안먹는 라면 오늘랑 먹어보카.
(집에서도 잘 안먹는 라면 오늘은 먹어볼까?)
김선생 : 물이 **보글락보글락** 허는 거 보민 무사 라면 생각남신고 예?
(물이 보글락보글락 하는 것을 보면 왜 라면 생각날까요?)
이선생 : 게메. 라면 끓일 때 물 잘 끓어야 하는 것 때문인가?
(그러게. 라면 끓일 때 물이 잘 끓어야 하는 것 때문일까?)

<해설>

보글락보글락은 뜻이 여러 가지로 1) 물 속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모양 2)이불 속에서 사람이 꼬물꼬물 움직이는 모양 3)물이 끓는 모양을 말한다. 표준어로는 보글보글이 가까운데 이 경우는 3)의 뜻이다.

<낱말 알아보기>

벨나게 : 유별나게
먹으카마씀? : 먹을까요?
주전지 : 주전자
끓엄시난 : 끓고있으니
생각남신고 : 생각날까
보민 : 보면

◎ 발착발착 : 질퍽질퍽

장면: 태풍이 지나고 난 후 실외 청소를 하면서 학생들이 질퍽질퍽한 곳에 걷는 것을 선생님이 말리는 상황

선생님 : 얘들아. 이번 지나가는 태풍 이름이 뭐랜 허는지 알아?
(얘들아. 이번 지나가는 태풍 이름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경민 : 덴문가 하던데요.

선생님 : 기여. 뭐 천둥과 벼락을 관장하는 여신 이름이라고 하더라. 경헌디 덴무가 지나간 후 학교가 말 아니게 돼싸졌져. 너네 등교하면서 보았지.
(그래. 뭐 천둥과 벼락을 관장하는 여신 이름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덴무가 지나간 후 학교가 말이 아니게 뒤집어졌네. 너희들 등교하면서 보았지.)

학생들 : 예.

선생님 : 경허난 청소 좀 해사키여.
(그래서 청소 좀 해야겠다.)

학생들 : 애애애....

선생님 : 야자나무 껍데기 등 아멩이나 널부러져 있어서 보기가 참 숭허다. 지금부터 조를 나눠 청소허게. 즐겁게 하게.
(야자나무 껍데기 등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어서 보기가 참 흉하다. 지금부터 조를 나눠 청소하자. 즐겁게 하자.)

(청소 중)

선생님 : 경민아. 저기 수민이는 무사 **발착발착**한 디 댕겸시니?
(경민아. 저기 수민이는 왜 발착발착한 곳에 다니고 있니?)

경민 : 수민아. 선생님이 너 거기 물 있는 곳에 다니지 말랜.
(수민아. 선생님이 넌 거기 물 있는 곳에 다니지 말라고 하셔.)

수민 : 내 맘이지 뭐. 그냥 시원허난 좋다.
(내 맘이지 뭐. 그냥 시원해서 좋다.)

선생님 : 게민 수민아. 이땅 청소 끝나민 손도 씻고 발도 씻어사 허키여.
(그러면 수민아. 이따가 청소 끝나면 손도 씻고 발도 씻어라.)

수민 : 예. 선생님.

<해설>
발착발착은 질퍽질퍽하는 모양을 말한다. 비슷한 말로 빌학빌학이 있는 데 이것은 물기 많은 진흙을 아무렇게나 밟으며 걷는 모양 또는 그 소리를 말한다.

<낱말 알아보기>
뒈싸졌져 : 뒤집어졌네
해사키여 : 해야겠다
숭허다 : 흉하다
씻어사 : 씻어야
허키여 : 하겠다
댕겸시니? : 다니고 있니?

◎ 버버작작 : 자기말만 자기말이라고 우기는 모양
장면: 친구와 싸운 후 선생님께 불려와서 한 학생이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말만 하는 상황

학생들 : (교무실로 몰려와서) 선생님. 선생님. 종민이와 현규가 지금 막 싸왐수다.
(선생님 선생님 종민이와 현규가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선생님 : 기?
(그래?)
(교실로 급히 가서 종민과 현규를 데리고 교무실로 들어간다)
선생님 : 종민아 현규야 거기 좀 앉아보라. 종민아 현규야 무사 싸워시니? 종민아. 보난 느가 많이 맞은 거 같은디 먼저 말해보라.
(종민아 현규야 거기 좀 앉아봐라. 종민아 현규야 왜 싸웠니? 종민아 보니까 네가 많이 맞은 것 같은데 먼저 말해봐라.)
종민 : (울먹이며) 저어.....
현규 : (끼어들어서) 선생님. 종민이가 지난 시간부터 지우개가루를 제게 막 던졌어요. 그리고 종민이가 또 내 연필도 가져강 꺾어부런 아까 수업시간에도 잘 못써서 선생님께 혼났어요. 또, 또..
(선생님. 종민이가 지난 시간부터 지우개가루를 제게 막 던졌어요. 그리고 종민이가 또 나 연필도 가져가서 꺾어버려 아까 수업시간에도 잘 쓰지 못해 선생님께 혼났어요. 또, 또..)
선생님 : ᄀᆞ만시라. 경헌디 느 혼자 **버버작작**허지 말앙 좀 기다려보라. 종민이가 지금 맞앙 억울헹 허는 거 같으난 들어보게. 종민아 지금 현규가 한 말이 사실이냐?
(가만있어라. 그런데 너 혼자 버버작작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종민이가 지금 맞아서 억울해 하는 것 같으니까 들어보자. 종민아 지금 현규가 한 말 사실이니?)
종민 :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아니우다. 처음엔 저는 가만 했는디 현규가 내 책도 숨기곡 필통도 숨기곡 못살게 굴었어요. 참다가 저도 한번 복수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예요. 처음엔 저는 가만 했는데 현규가 내 책고 숨기고 필통도

숨기고 못살게 굴었어요. 참다가 저도 한번 복수하려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 현규야. 종민이가 한 말 사실이냐?
현규 : (조용히) 예.
선생님 : 게민 둘 다 잘못해신게. 먼저 현규가 종민이안틔 사과해사키여.
(그러면 둘 다 잘못했네. 먼저 현규가 종민이에게 사과해야겠다.)
현규 : 종민아. 내가 너 책하고 필통 숨겨버린 거 미안해.
종민 : 괜찮아. 나도 지우개가루 던진 거 하고 연필 꺾어분거 미안해.
(괜찮아. 나도 지우개가루 던진 것 하고 연필 꺾어버린 것 미안해)
선생님 : 자 그럼 둘 다 악수하고 교실로 돌아가.

<해설>
버버작작은 제 말만 말이라고 우기는 모양을 말한다. 버버직직, 버부작작 등의 형태로도 쓰인다. 다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모양을 말하는 제주어라고 설명되어 있다.

<낱말 알아보기>
보난 : 보니까
꺾어부런 : 꺾어버려서
ᄀᆞ만시라 : 가만 있어라.
느 : 너
말앙 : 말고
숨기곡 : 숨기고
게민 : 그러면

◎ 박작박작 : 긁적긁적
장면: 남편이 등이 가려워서 박작박작 긁는데 아내가 도와주는 장면

아내 : 여보. 무사 인칙부터 **박작박작** 긁엄수과?
(여보. 왜 일찍부터 박작박작 긁고 있어요?)
남편 : 모르크라게. 어제 벌초갔다와부난 경햄신가? 여기 등짝이 막 ᄀᆞ롭다.
(모르겠다. 어제 벌초갔다와서 그런가? 여기 등짝이 아주 가렵네.)
아내 : 이쪽으로 돌아앉읍써 보게.
(이쪽으로 돌아앉아 보세요.)
(남편 돌아앉는다)
아내 : 아이고. 이디 미시것산디 뽀족뽀족 벌겋게 나수다.
(아이고. 여기 무엇인지 뾰족뾰족 벌겋게 났어요.)
남편 : 어제 벌초헐때 풀독 올라신가?
(어제 벌초할 때 풀 독 옮았나?)
아내 : 무사 갈옷 우 아래로 잘 입엉허지 안해수과?
(왜 갈옷을 위아래로 잘 입어서 하지 않았어요?)
남편 : 처음엔 잘 입엉 허당 나중엔 너무 더웡 웃옷은 벗엉 난닝구만 입엉햇주게.
(처음엔 잘 입고 하다가 나중엔 너무 더워서 웃옷은 벗어 런닝만 입고 했어.)
아내 : 경허난 풀독 올른 것 같으우다. 여기서 **박작박작** 긁지 마랑 재기 병원에 갑써.
(그래서 풀독 옮은 것 같아요. 여기서 박작박작 긁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세요.)
남편 : 아명해도 병원에 가사겠지?
(아무래도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지?)
아내 : 예게. 병원에 가는 것이 최고우다. 처방받은 대로 허민 재기 낫주마씀.
(예. 병원에 가는 것이 최고예요. 처방받은 대로 하면 빨리 나을 거예요.)

<해설>
박작박작은 가려운 곳을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빨리 긁는 모양을 말한다.
한컴사전 표준어사전을 찾아보면 많은 사람이 좁은 곳에 모여 매우 어수선하게 자꾸 움직이는 모양이라고 되어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조금씩 재게 긁는 모양이라고 되어있으며 북한말이라고 설명되어있다.

<낱말 알아보기>
인칙부터 : 일찍부터
벌초갔다와부난 : 벌초갔다왔기 때문에
ᄀᆞ랍다 : 가렵다
미시것산디 : 무엇인지
입엉 허당 : 입고 하다가
아명해도 : 아무래도

◎ 바들랑바들랑 : 바동바동
장면: 친구 미연이과 순희가 바다에 나가 수영연습을 하려고 대화하는 상황

미연 : 순희야. 오늘 진짜 더운디 바당에 놀러가게.
(순희야. 오늘 정말 더운데 바다에 놀러가자.)
순희 : 경허카? 일곱물이난 ᄀᆞ메기도 잡곡 가카?
(그럴까? 일곱물이니 보말도 잡고 가볼까?)
(바다에 간다)
미연 : 순희야. 우리 바당물에 들어강 수영연습이나 하카?
(순희야. 우리 바닷물에 들어가서 수영연습이나 할까?)
순희 : 경허게. 경헌디 미연아. 너 수영헐 중은 알아져?
(그러자. 그런데 미연아. 너 수영할 줄 알아?)
미연 : 잘은 못해도 물에 들어강 **바들랑바들랑** 거렴시민 되주게. 넌 헐 중 알아?
(잘 못해도 물에 들어가서 **바들랑바들랑** 하고 있으면 돼. 넌 할 줄 아니?)
순희 : 나도 잘 못해. 물에 들어강 **바들랑바들랑** 거리민 진짜 물에 뜨카? ᄀᆞ라앉아불지 안으카?
(나도 잘 못행. 물에 들어가서 **바들랑바들랑** 하고 있으면 진짜 물에 뜰까? 가라앉아 버리지 않을까?)
미연 : 지난번에 동생이랑 한번 왕 **바들랑바들랑** 거리니까 ᄒᆞ썰 되는 거 닮아라.
(지난번에 동생이랑 한번 와서 **바들랑바들랑** 거리니까 조금 되는 것 같더라.)
순희 : 게민 물에 들어강 **바들랑바들랑** 거려보게. 짚은 데는 들어가민 안뒈여.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바들랑바들랑** 해보자. 깊은 데는 들어가면 안돼)
미연 : 알아서. 순희야. 여기보라. 여기 ᄀᆞ메기 수두락ᄒᆞᆫ게 하영 있쩌.
(알아. 순희야. 여기봐봐. 여기 보말 아주 많이 있네.)
순희 : 어디어디. 진짜네. 우리 먼저 보말부터 잡아보게.

(어디어디. 정말이네. 우리 먼저 보말부터 잡자.)
미연 : 경허게.
(그러자)

<해설>바들랑바들랑은 손과 발 따위를 되는 대로 내흔드는 모양 또는 절규하거나 안간힘을 다하여 어떤 구속된 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동작의 모양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요늠으 신랑이 바들랑바들랑 죽어가는 거라.(요놈의 신랑이 바들랑바들랑 죽어가는 거야.)'와 같이 쓴다. ㅂ들락ㅂ들락 또는 ㅂ들랑ㅂ들랑 도 같은 의미이다.

<낱말 알아보기>
바당 : 바다
거렴시민 : 하고 있으면
뜨카? : 뜰까?
ᄀᆞ라 앉아불지 : 가라앉지
ᄒᆞ썰 : 조금
짚은 : 깊은
ᄀᆞ메기 : 보말
수두락ᄒᆞᆫ게 : 수두룩하게

◎ 소르릉소르릉 : 쓱싹쓱싹

아버지 : 민수야. 내일 벌초갈 거난 나영 ᄀᆞ찌 벌초기계 손봐사키여.
(민수야. 내일 벌초 갈 거니까 나랑 같이 벌초 기계 손봐야겠다.)
민수 : 예. 내일 벌초 갈 거우꽈? 벌초 철은 잘도 재기 돌아왐수다 예?
(예. 내일 벌초 갈 거예요? 벌초 철은 아주 빨리 돌아오네요)
아버지 : 게메 말이여. 내일 벌초 갈 수 있주 이?
(그러게 말이다. 내일 벌초 갈 수 있지?)
민수 : 예. 가쿠다. 경헌디 벌초 때마다 기계 손봐사 뒈는 것이우꽈?
(예. 갈게요. 그런데 벌초 때마다 기계 손봐야 하는 것예요?)
아버지 : 경해사 날이 잘 들엉 **소르릉 소르릉** 풀이 잘 비어진다.
(그래야 날이 잘 들어서 소르릉 소르릉 풀이 잘 베어진다.)
민수 : 날이 보미민 풀이 끈차지지도 않곡 힘들기만 헙디다.
(날이 녹슬면 풀이 끊어지지도 않고 힘들기만 했어요.)
아버지 : 벌초 기계영 ᄒᆞ미영 기계 지름이영 잘 준비허라. 작년추룩 잊어불지 말앙.
(벌초 기계와 낫과 기계기름 잘 준비해라. 작년처럼 잊어버리지 말고)
민수 : 예. 이번은 멩심해영 잘 허쿠다.
(예 이번에는 명심해서 잘 할게요)
아버지 : 조상덜 무덤을 잘 돌봐사 ᄌᆞ손들도 잘 되는 거여. 느 서울에 대학가도 벌초허래 내려와산다 이?
(조상들 무덤을 잘 돌봐야 자손들도 잘 되는 거야. 너 서울에 대학가도 벌초하러 내려와야 한다.)
민수 : 예. 알아수다. 아버지 혼자 벌초허민 힘들엉 안됩주.
(예. 알았아요. 아버지 혼자 벌초하면 힘들어서 안돼요.)

<해설>소르릉소르릉은 잘 드는 낫에 꼴 따위가 쉽게 베어지는 모양이나 소리를 말한다. 표준어는 쓱싹쓱싹이 가장 가까운 뜻인 것 같으며, 사르릉사르릉 또는 스르릉스르릉 도 같은 의미이나 한검 사전에 의하면 물건이 조금씩

쓸리면서 시원스럽게 잇따라 울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이라고 되어 있으며 북한말이라고 나와 있음.

<낱말 알아보기>
ᄀᆞ찌 : 같이
잘도 재기 : 아주 빨리
보미민 : 녹슬면
끈차지지도 : 끊어지지도
멩심해영 : 명심해서
내려와산다 이? : 내려와야 한다.

◎ 심드렁펀펀 : 우이독경하는 모양
장면: 교실에서 유행성눈병 걸리지 않는 예방법에 관한 선생님과 아이들의 대화장면 중 문태라는 학생이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상황

선생님 : 여러분! 요즘 유행성 결막염이 유행이라는 데, 조심해야겠지?
학생들 : 예. 아니 뭐 눈병 걸리민 학교 안 나왕 좋지 뭐
(예. 아니 뭐 눈병 걸리면 학교 안나와도 되고 좋지 뭐)
선생님 : 미시거라? 눈병 걸리민 학교 안 나왕 좋으크라?
(뭐라? 눈병 걸리면 학교 안 나와서 좋겠다고?)
학생들 : 선생님. 농이우다 농. 농도 못헙니까?
(선생님. 농담이예요 농담. 농담도 못합니까?)
선생님 : 기여. 농담 그만 하고. 어떵허민 유행성 눈병에 안 걸릴 거 닮으니?
(그래. 농담 그만 하고. 어떻게 하면 유행성 눈병에 안 걸릴 것 같니?)
학생들 : 텔레비전에서 광고허는 것추룩 손을 깨끗이 잘 씻곡 양치를 잘 허곡 남의 썼던 수건을 쓰지 말곡 허민 될 거 아니우꽈?
(텔레비젼에서 광고하는 것 처럼 손을 깨끗이 잘 씻고 양치를 잘 하고 남의 썼던 수건을 쓰지 말고 하면 될 거 아니예요?)
선생님 : 잘 알암신게. 이젠 뒀져. 경허민 문태 일어낭 유행성 결막염에 안걸리려면 어떵 해사는지 어디 한번 말해보라.
(잘 알고 있네. 이제 됐구나. 그러면 문태 일어나서 유행성 결막염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디 한번 말해봐라.)
문태 : (일어서서 머뭇머뭇거린다)
선생님 : 아이고. 우리가 이제꺼정 유행성 눈병 걸리지 안허잰 예방법 공부를 해신디 너는 **심드렁펀펀** 허민 어떵헐거냐게? 문태가 젤 먼저 눈병걸렁 우리반에 전파시키민 큰일 나키여. 문태야 잘 들어사 헌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눈병 예방법 말해보세요.
(아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유행성 눈병 걸리지 않으려고 예방법 공부를 했는데 너는 심드렁펀펀하면 어떻게 할 거니? 문태가 제일 먼저 눈병 걸려서 우리반에 전파시키면 큰일 나겠다. 문태야 잘 들어야 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눈병 예방법 말해보세요)

<해설>심드렁펀펀은 급한 일이 있거나 말을 하여도 응하지 않고 모른 척 하는 모양 또는 다른 사람이 혼내거나 충고하거나 뭐라 말하건 간에 모른 척 하는 모양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자인 뭐렝 해도 심드렁펀펀햄져(쟤는 뭐라고 말해도 못들은 척 하고 있다.)'와 같이 쓰인다.

<낱말 알아보기>
안 나왕 : 안 나와서
미시거라? : 뭐라?
좋으크라? : 좋겠다고?
어떵허민 : 어떻게 하면
닮으니? : 같으니?
알암신게 : 알고있네
해사는지 : 해야 하는지

◎ 실트락실트락 : 시위적시위적

장면: 마지막 수업시간에 혼난 준혁이가 실외 청소를 하기 싫어서 느릿느릿 하는 장면.

선생님 : 애들아. 청소시간이구나. 실외 청소할 학생들은 현관 앞으로 모이라.

학생들 : 예.

선생님 : 빗치락과 쓰레받기도 가지고 나와.

(빗자루와 쓰레받기도 가지도 나와)

학생들 : 예

선생님 : 준혁이는 여기에서 저기까정 쓸곡, 민준이는 여기서 저기까정 쓸어 불라

(준혁이는 여기에서 저기까지 쓸고, 민준이는 여기에서 저기까지 쓸어라)

학생들 : 예

선생님 : 경헌디 준혁이는 인칙부터 무사 **실트락실트락** 햄시니?

(그런데 준혁이는 일찍부터 왜 청소를 하기 싫은 사람처럼 굴고 있니?)

민준 : 선생님. 준혁이는 오늘 청소할 마음이 안 날거우다.

(선생님. 준혁이는 오늘 청소할 마음이 안 날 거예요)

선생님 : 무사? 무신 일 이선?

(왜? 무슨 일 있었니?)

민준 : 오늘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께 혼 나수게. 경해서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실트락실트락**허는 것 같수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께 혼 났어요. 그래서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저렇게 구는 것 같아요)

선생님 : 기냐? 준혁아

(그러니? 준혁아)

준혁 : 예.

선생님 :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께 혼나서 많이 속상했구나.

준혁 : (.....). (미적거린다).

선생님 : 게민 청소허지 말고 내일랑 허카?

(그럼 청소하지 말고 내일 할까?)
준혁 : 아니우다. 지금 허고 가쿠다.
(아니예요. 지금 하고 갈게요.)

<해설>실트락실트락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아가며 느리게 하는 모양을 말한다. 걸어가기 싫은 길을 걸어갈 때 '실트락실트락 걷는다'. 고 말한다. 표준어로는 시위적시위적인데 사전에 따르면 일을 힘들여 하지 아니하고 되는 대로 천천히 하는 모양을 말한다.

<낱말 알아보기>
빗치락 : 빗자루
인칙부터 : 일찍부터
무사? : 왜?
무신 : 무근
이선? : 있었니?
기냐? : 그러니?
게민 : 그러면

◎ 소들소들 : 소들소들

장면: 학교의 화분의 페추니아 꽃이 방학동안에 시들시들해버려서 선생님이 걱정하는 모양을 학생과 대화로 나누는 장면

선생님 : (방학중 오랜만에 학교에 나간다. 혼잣말로) 아이고. 화분의 꽃들이 모두 **소들소들**해부렀네. 애들아. 페츄니아 꽃이 **소들소들**헌거 안 보염시냐?
(아이고. 화분의 꽃들이 모두 시들시들해버렸네. 얘들아 페추니아 꽃이 시들시들한 거 안 보이니?)

학생 : (방학중 봉사활동 하러 학교에 나옴)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 밖에 있는 화분에 있는 꽃 말이여게. 방학 동안에 화분에 물주기 봉사활동당번이 있었는디 물을 잘 안준 모양이여. 이대로 놔두면 금방 다 죽어불키여게.
(밖에 있는 화분에 있는 꽃 말이야. 방학 동안에 화분에 물주기 봉사활동당번이 있었는데 물을 잘 안 준 모양이네. 이대로 놔두면 금방 다 죽어버릴텐데)

학생 : 선생님. 진호가 와서 매일 물을 주는 것 봤어요. 오늘도 아침 9시정도에 와서 물주고 갔어요.

선생님 : 기냐? 게민 여름 볕이 너무 뜨거워서 **소들소들**해부럼구나게.
(그러니? 그러면 여름 볕이 너무 뜨거워서 시들시들해지고 있구나)

학생 : 걱정마세요. 선생님, 오늘은 소나기도 온다고 했으니까 꽃들도 살아날 거예요.

선생님 : 기여. 매일 물도 주었젠 허는디 **소들소들**허는 거난 비나 시원하게 내리민 생기가 돌 거여.
(그래. 매일 물도 주었는데 시들시들 하는 것이니 비가 시원하게 내리면 생기가 돌겠지)

<해설>소들소들은 표준어와 같으며 사전적 뜻으로는 풀이나 뿌리, 열매 따위가 시들고 말라서 생기가 조금 없는 모양을 말한다. 같은 뜻을 가진 말로는 시들시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번 여름엔 가물어서 고구마 줄기가 모두

소들소들해가네.' '고구마를 캐어 그늘에 놔두어 소들소들해지면 쪄서 먹어 봐. 아주 맛있어.'와 같이 쓰인다.

<낱말 알아보기>
보염시냐? : 보이니?
죽어불키여게 : 죽어버리겠네.
소들소들해부럼구나게 : 시들시들해지고 있구나
기여 : 그래
~거난 : ~거니까

◎ 소랑소랑 : 가늘고 길쭉한 모양
장면: 물외밭에서 물외가 알맞은 크기로 잘 달려서 맛도 좋겠다고 어머니와 딸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어머니 : (전화로) 여보세요? 소형이 어멍이가?
(여보세요? 소형이 엄마니?)
딸 : 예. 무사마씀?
(예. 무슨 일이예요?)
어머니 : 물외 가져당 먹으라. 하영 ᄋᆞ랐져.
(물외 갖다 먹으라. 많이 달렸다.)
딸 : 알아수다. 곧 가쿠다
(알았어요. 곧 갈게요)

(딸이 어머니 집 외밭에 간다)

딸 : 올핸 물외가 소**랑소랑** 보기 좋게 잘 ᄋᆞ라수다 예.
(올해는 물외가 보기좋게 알맞은 크기로 잘 달렸네요)
어머니 : **소랑소랑** 헌 것도 있주마는 **수룸수룸**헌 것도 있져. 물외가 천차만별이주 똑 같을 리가 이시냐?
(알맞은 크기도 있지만 조금 긴 듯한 모양을 한 것도 있지. 물외모양이 천차만별이지 꼭 같은 모양일 리가 있니?.)
딸 : 경헌게 마씀. 된장 풀엉 냉국 만들민 정말 맛 좋으쿠다.
(그렇네요. 된장 풀어서 냉국 만들면 정말 맛 있겠어요)
어머니 : 게메. 된장은 어떵핸 먹엄서?
(그래. 된장은 어떻게 해서 먹고 있니?)
딸 : 어떵핸 먹음니까? 사당 먹엄쭈. 어머니가 만들엉 주지 않으난 헐 수 없지 않으꽈.
(어떻게 해서 먹긴요. 사다가 먹고 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서 주지 않으니 별 수 없지 않아요?)

<해설>소랑소랑은 가늘고 길쭉한 모양을 말하고 수룸수룸은 여럿이 다 조금 긴 듯한 모양을 말한다.

<낱말 알아보기>
무사마씀? : 왜그래요?
ᄋᆞ랐져 : 달렸다.
가쿠다 : 가겠어요
ᄀᆞᆮ을 : 같을
사당 : 사다가
만들엉 : 만들어서

<솔그랭이 : 가만히 또는 고스란히>

장면: 선흘리에 있는 세계자연유산을 답사하려고 하는 선생님과 학생들간의 대화내용이다.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답사할 때 까다롭게 군다는 것을 내용으로 솔그랭이(고스란히)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선생님 : 얘들아. 이번 여름은 덥고 헌디 거문오름 답사나 가보카?
(얘들아. 이번 여름은 덥고 하니 거문오름 답사나 가볼까?)

학생들 : 거문오름이 어디 이수꽈?
(거문오름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 선흘리 어디쯤 있는디 세계자연유산이라고 허더라. 경허난 답사할 때도 지켜야 할 것이 하댄 해라.
(선흘리 어디쯤 있는데 세계자연유산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답사할 때도 지켜야 할 것이 많다고 하더라)

학생들 : 어떤 거 이서 마씀?
(어떤 것이 있어요?)

선생님 : 간식도 먹으민 안뒈곡 떠들어도 안뒈곡 앞사롬보다 재기 가잰 해도 안뒈곡 물론 고장이나 나무를 꺾으민 안뒈곡.....
(간식도 먹으면 안 되고 떠들어도 안 되고 앞사람 보다 빨리 가려고 해도 안 되고 물론 꽃이나 나무를 꺾으면 안되고.....)

학생들 : 무사 그추룩 까다로운 척 ᄒᆞ는거? 다른 오름들은 마음대로 올라도 되는디...
(왜 그렇게 까다로운가요? 다른 오름들은 마음대로 올라도 되는데)

선생님 : 숲해설사 말 들엉 보난 세계자연유산은 보존 가치가 큰 것이라 경 햄잰. 삼다수 물은 먹을 수 있는디 다른 것들은 먹다가 떨어지민 자연이 부패할 가능성이 하댄 허더라. 그러면서 뭐 지금 우리가 **솔그랭이** 잘 간수했당 후손들에게 물려줘사 한다고 하더라.
(숲해설사 말 들어보니 세계자연유산은 보존가치가 큰 것이라 그렇대. 삼다수 물은 먹을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먹다가 떨어지면 자연이 부패할 가증성이 많다고 그래. 그러면서 뭐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하더라.)

학생들 : 기꽈?
(그래요?)

<해설>솔그랭이는 '고스란히'란 뜻이다. 예를 들면 '거기를 파보니 그냥 풍질에 몰아단 솔그랭이 그자 뒤죽합죽 핸 놔 뒀어(그곳을 파보니 그냥 풍질에 몰아다가 고스란히 그저 뒤죽박죽해서 놓아 두었어.)' 처럼 쓰인다.(*풍질 : 시체를 묻어두면 그 시체가 땅 속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게된 지형*)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오고셍이가 있는데 이는 '어떤 물건의 본디 그대로. 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거나 조심스럽게'란 뜻을 가지고 있다.

<낱말 알아보기>
하댄 : 많다
재기 가잰 : 빨리 가려고
고장 : 꽃
무사 그추룩 : 왜 그렇게
경햄잰 : 그렇게 한 대
간수했당 : 잘 가꾸어 보호하다가
좋쿠다. : 좋을 것 같습니다.

장면1: 동네친구인 수완이가 진수, 진성에게 바다에 놀러가자고 한다.
대화
수완 : 야. 우리 바당에 놀러가게.
진수, 진성 : 기여. 수영도 하고 재미나게 놀다오게.

장면2: (바다에 도착하여 수완이는 튜브를 타고 놀고 진수와 진성이는 튜브에 둘러붙어 놀고 있다.)
대화 :
진수 : 수완아. 나도 한번 타보자.
진성 : 나도 나도
수완 : 안돼. 나도 지금 막 타신디 좀 기다려.
(진수가 진성에게 눈짓하더니 수완이 타고 있는 튜브를 뒈싸버린다.)

장면3 : (튜브를 타고 있던 수완이 물에 빠져 **ᄇᆞ들랑ᄇᆞ들랑** 거린다.)
진성 : 야. 수완이 너 장난하지 마.
진수 : 진성아. 아무래도 수완이 장난 아닌 것 같은디

장면4 : (물에 빠진 수완이 계속 **ᄇᆞ들랑ᄇᆞ들랑** 거리고 있다.)
진수 : 야 아무래도 수완이 **ᄇᆞ들랑ᄇᆞ들랑** 허는 것 보난 장난 아닌 것 같다. 사람들 불러와사크라. 너 빨리 가서 어른들 불러와 봐. 가만 놔두면 수완이 큰일 나크라.

장면5 : (진성이 어른들에게 달려가 물에 친구가 빠진 것 같으니 구해달라고 사정한다. 어른들이 몰려나온다.)
어른1 : 아이고. 재기 가보라. 자이 ᄇᆞ들랑ᄇᆞ들랑 허는 것 보니까 큰일 생김직 허다.
어른2 : ᄀᆞ만 이십서. 나가 가보쿠다.

장면6 : (어른2가 수완이를 건져서 갯가로 눕힌다.)
어른2 : 야이 복 먹은모양이여.(응급처리로 호흡법을 한다.)
수완 : 어푸.(정신을 차린다)
진성,진수 : 수완아. 괜찮아? 미안해. 장난이어신디. (진성이 진수와 함께 운다.)
어른들 : 바당에서 장난허민 정말 큰일난다. 다음부터 조심허라.
진성,진수 : 예. 고맙수다.

<해설>ᄇᆞ들랑ᄇᆞ들랑은 바동바동이란 뜻으로 ᄇᆞ들락ᄇᆞ들락이라고도 한다. 가운디는 그물이 막 메와졍 시난 톡 걸렁 궤기가 ᄇᆞ들락ᄇᆞ들락ᄒᆞ믄 바깟듸 ᄁᆞ딱을 못ᄒᆞ여.(가운데는 그물이 막 모여 있으니까 톡 걸려서 고기가 바동바동하면 바깥에 까딱을 못해)

<낱말 알아보기>
뒈싸버린다 : 뒤집어버린다.
불러와사크라 : 불러와야겠다.
재기 : 빨리
생김직 : 생길 것
ᄀᆞ만 이십서 : 가만 계세요
복 먹다 : 물속에 빠져 물을 먹다
바당 : 바다

◎ 알롱달롱(알롱달롱)

아방 : 자, 이거. 선물로 사 와시난 입으라.
(자, 이것. 선물로 사 왔으니까 입어라.)
어멍 : 뭐꽈? 뭘 사왓덴 헴수과?
(뭐예요? 무엇을 사왔다고 하십니까?)
아방 : 오널 철이 아방이랑 오일장에 막걸리 먹으레 갓단 **알롱달롱** 고운 옷이 눈에 보이는 거라. 경허연 하나 사와서. 큰 ᄆᆞ슴 먹언 사와시난 혼 번 입어보주게.
(오늘 철이 아버지와 함께 오일장에 막걸리 먹으려고 갔다가 알록달록 고운 옷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 사왔어. 큰 마음 먹고 사왔으니까 한 번 입어보지.)
어멍 : 메께라. 이거 무슨 일. 살다보난 아방헌디서 선물이렌 ᄒᆞ는 것도 받아점쪄. 낼은 ᄒᆞ놀이 뒈싸지는 거 아닌지 모르켜.
(어머나, 이건 무슨 일이야. 살다보니까 남편에게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보네. 내일은 하늘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
아방 : 허, 이거 참. 무슨 말을 경헴서. 난 무사 선물이렌 허영 사 오민 안 되어.
(허, 이것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나는 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 오면 안 되는가?)
어멍 : 아고게, 무사게? 선물 사 오는 거 난 막 좋수다. 경헌디 그 동안 번찍 엇단 이제사 혼 번 사다 주난 너무 놀래언 경 허는 거주게.
(어머나, 왜요? 선물을 사 오는 것은 나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동안 전혀 없다가 이제야 한 번 사다 주니까 너무 놀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방 : 허, 이거 참. 앞으론 ᄌᆞ주 사다주크라. 경허난 거 마음에 안 든뎅 허영 데껴불지 말앙 잘 입엉 댕기라.
(허, 이것 참. 앞으로는 자주 사다주겠어. 그러니 그것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던져버리지 말고 잘 입고 다녀.)
어멍 : 알아수다. 이거 무늬가 **알롱알롱** 잘도 고운게. 잘 입엉 다닐거난 걱정허지 맙서. 고맙수다.

(알았어요. 이것은 무늬가 알록달록 매우 고우네. 잘 입고 다닐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삽화

'어멍'이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새옷을 들고 기뻐하는 장면

<해설>'알롱달롱'은 '여러 가지 빛깔의 작고 또렷한 점이나 줄 따위가 **고르지 아니하고** 촘촘하게 무늬를 이룬 모양'을 뜻한다. **'알록달록'**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로 제주지역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실상은 표준어와 동일한 형태와 의미를 가진 말이다. '여러 가지 빛깔의 작고 또렷한 점이나 줄 따위가 **고르고** 촘촘하게 무늬를 이룬 모양'을 뜻할 때는 **'알롱알롱'**을 쓴다. 제주도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낱말이다.

<낱말 알아보기>

경허연 : 그래서. 그렇게 하여.
메께라 : 어머나. 아니(깜짝 놀랄 때).
뒈싸지는 : 뒤집어지는. *ᄒᆞ늘이 뒈싸지는 : 천지개벽하는.
무사 : 왜? 무엇 때문에.
번찍 : 전혀. 도무지.
데껴 불지 : 던져 버리지.

◎ 아올아올(냠냠/벙긋벙긋)

할망 1 : 아이고, 오랜만이우다. 어떵 잘 살암수과?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잘 살고 있습니까?)
할망 2 : 아이고, 정말 오랜만에 봐점수다. 경헌디 지금 경 곱닥ᄒᆞ게 출영 어드레 감수과? 어디 새스방 얻으레 감수과?
(아이고,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곱게 차려입고 어디에 가십니까? 어디에 새 서방을 얻으려고 가십니까?)
할망 1 : 아이고, 누게가 들엉 헛소문내불카부덴 애ᄌᆞ자점수다. 경헌게 아니라 이제 막 돌 지난 우리 둘쳇손지가 어떵사 밥을 **아올아올** 잘 먹는지, 그 손지 멕일 반찬 사젱 장에 감수다.
(아이고, 누가 들으면 헛소문 낼까봐 애가 탑니다. 그런게 아니라 이제 막 돌 지난 우리 둘째 손자가 어떻게나 밥을 냠냠 맛있게 잘 먹는지, 그 손자 먹일 반찬을 사려고 장에 갑니다.)
할망 2 : 기꽈? 우리 손지 아기도 이런거저런거 **아올아올** 잘 먹는디, 게민 나도 손지 멕일 것덜 사레나 가카?
(그렇습니까? 우리 손자 아기도 이것저것 냠냠 맛있게 잘 먹는데, 그러면 나도 손자 먹일 것들을 사러 갈까?)
할망 1 : 경헙서. 나영 ᄀᆞ찌 가게 마씸. 오랜만에 ᄆᆞ슬 강 장구경도 ᄒᆞ곡 맛좋은 거 사 먹기도 ᄒᆞ게마씸.
(그렇게 하세요. 나하고 같이 갑시다. 오랜만에 외출해서 장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을 사 먹기도 합시다.)
할망 2 : 게민 이서 봅써. 나 집에 들어강 확 출영 나오쿠다. 여기 상 나 출영 나올 때ᄁᆞ장 ᄒᆞ쏠 지드립서.
(그러면 계셔 보십시오. 나 집에 들어가서 빨리 차리고 나오겠습니다. 여기 서서 나 차리고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할망 1 : 알아수다. 나 걱정허지랑 말앙 할망도 곱닥ᄒᆞ게 출영 옵써.
할망 2 : 무신, 난 곱닥ᄒᆞ게 ᄎᆞ리나마나 그게그거난 옷만 재게 갈아입엉 오쿠다. ᄒᆞ쏠 지드립서 양.
(무슨, 난 곱게 차리나마나 그게 그것이니까 옷만 빨리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삽화

두 살배기 아기가 밥과 반찬을 앞에 놓고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입 안으로 넣으면서 냠냠 맛있게 먹는 장면

<해설>

'아올아올'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양'과 '저절로 틈이 벌어지는 모양'을 뜻한다. 표준어에 직접 대응되는 말은 없으나, 전자는 '냠냠'과 의미가 같고 후자는 '벙긋벙긋'에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다. 제주도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태어이다.

<낱말 알아보기>

곱닥ᄒᆞ게 : 곱게
출영 : 차리고. 차려입고.
기꽈? : 그렇습니까?
ᄀᆞ찌 : 같이. 함께.
ᄒᆞ쏠 : 잠시. 조금.
지드립서 : 기다려주십시오.

◎ 앙앙작작(왁자글왁자글)

장면

아들 : 어멍 머 헴수과? 혼저 밥 줍써. 나 재게 가야 홀거라.
(어머니, 뭐 하십니까? 빨리 밥을 주세요. 나 빨리 가야 할 거야.)

어멍 : 하이고, 요놈의 자식아. 나도 막 재게 허젱 헴저. 경 **앙앙작작**ᄒᆞ지 말곡 ᄌᆞ치지 말라. 조고만 참앙 지드리라게.
(아이고, 요놈의 자식아. 나도 막 빨리 서두르고 있어. 그렇게 왁자글왁자글하지 말고 재촉하지 말라.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아들 : 시간 늦언 경 헴수게. 머 헴수과? 혼저 밥 줍써. 에이, 이제 안 주민 나 가쿠다. 밥 안 먹쿠다. 에이 씨.
(시간이 늦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하십니까? 빨리 밥을 주세요. 에이, 이제 안 주면 저 가겠습니다. 밥을 안 먹겠습니다. 에이 씨.)

어멍 : 야야, 요놈의 자식아. **앙앙작작**ᄒᆞ여가난 구눈이 왁왁ᄒᆞ다*. 이제 다 됏저. 아척을 잘 먹어사 공부도 잘 되곡 건강도 지킨덴 헤라. 자자 앉앙 혼저 먹으라.
*구눈이 왁왁ᄒᆞ다 :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여 캄캄하다. → 정신이 멍하다.
(야야, 요놈의 자식아. 왁자글왁자글하니까 정신이 멍하다. 이제 다 되었다. 아침을 잘 먹어야 공부도 잘 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하더라. 자자 앉아서 빨리 먹어라.)

아들 : 에이. 안 먹쿠다. 이제 안 나가민 지각ᄒᆞ영 벌 받게되어마씸. 나 가쿠다.
(에이, 안 먹겠습니다. 이제 안 나가면 지각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저 가겠습니다.)

어멍 : 게민 어떵 홀꺼니게. 경ᄒᆞ민 나 만 원 주켜. 학교 강 쉬는 시간에 먹을커 사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니? 그러면 내가 만 원 주마. 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 먹을 것을 사 먹어라.)

아들 : 알아수다. 혼저 줍서. 차 올 시간 뒈서.
(알았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차 올 시간이 됐습니다.)

어멍 : 기여. 여기 싯저. 때 거르지 말앙 꼭 사 먹으라. 알아시냐?
(그래. 여기 있다. 끼니 거르지 말고 꼭 사서 먹어라. 알았니?)
아들 : 예, 알아수다.
(예, 알았습니다.)

▮삽화

아들이 책가방을 들고 아침밥을 빨리 달라고 큰 소리로 왁자글왁자글 하는 장면

<해설>

'앙앙작작'은 '여럿이 모여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나 그 모양'을 뜻한다. 표준어의 **'왁자글왁자글'**에 대응하는 말로 제주도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아마도 이 말은 '어린아이가 크게 우는 소리나 그 모양', '앙탈을 부리며 자꾸 보채는 소리나 그 모양'을 뜻하는 **'앙앙'**과 '종이나 천 따위를 마구 찢는 소리나 그 모양'을 뜻하는 **'작작'**의 합성어일 것으로 추측된다.

<낱말 알아보기>

재게 : 빨리. 급하게.
ᄌᆞ치지 : 재촉하지.
가쿠다 : 가겠습니다.
왁왁ᄒᆞ다 : 캄캄하다. 매우 어둡다.
싯저 : 있어.
아척 : 아침.

◎ 이레착저레착(갈팡질팡/이리저리)
장면

게으른 농부 : 허, 오널도 눌어야 홀 찍덜이 잘도 하다. 이거 나 혼저 어떵 홀 거니.
(허, 오늘도 쌓아야 할 짚들이 매우 많구나. 이것을 나 혼자 어떻게 하지.)

부지런한 농부 : 어이. 뭐 헴서. 낼부턴 비 온덴 헴서. 재게 재게 ᄒᆞ여사 오널 중으로 눌 다 눌어질거여.
(어이. 뭐 하는가? 내일부터는 비가 온다고 했어. 빨리빨리 해야 오늘 중으로 낟가리를 다 쌓을 수 있을 거네.)

게으른 농부 : 알암서. 경해도 오널 ᄒᆞ루 안으로만 ᄒᆞ민 뒐거난 화닥닥화닥닥 서둘렁 홀거 뭐 이시니. ᄀᆞ다ᄀᆞ닥ᄒᆞ당보민 다 눌 때가 이실 거 아니라.
(알고 있어. 그래도 오늘 하루 안으로만 하면 되니까 후다닥 후다닥 서둘러서 할 게 뭐 있겠나. 가만가만 조금씩조금씩 하다 보면 다 쌓을 때가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부지런한 농부 : 허, 느ᄀᆞ찌 늘어진 사름이 오널 중으로 다 눌어질경가. 놈덜이 다 느 보민 느렁텡이렌 헴서. 재게 ᄒᆞ영 인칙 끝내불라.
(허, 너처럼 느릿느릿하는 사람이 오늘 중으로 다 쌓을 수 있겠는가? 남들이 모두 너를 보면 느림뱅이라고 하네. 빨리 해서 일찍 끝내게.)

게으른 농부 : 알앗저. 재게 홀 거난 경 다울리지 말라.
(알았네. 빠리 할 거니 그렇게 다그치지 말게.)

부지런한 농부 : 어이, 어이. 경ᄒᆞ곡 거 눌을 **이레착저레착**ᄒᆞ지 마랑 ᄏᆞ찡ᄒᆞ게 잘 눌라.
(어이, 어이. 그렇고 그 낟가리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지 말고 가지런히 잘 쌓아라.)

게으른 농부 : 무사? 나 **이레착저레착**ᄒᆞ지 안헴쩌. 영만ᄒᆞ민 잘 누는 거 아니가.
(왜?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지 않아. 이렇게만 하

면 잘 쌓는 것 아닌가?)

부지런한 농부 : 알앗저. 알앗저. 혼저 혼저 눌기만 ᄒᆞ라. 하늘 쳐다보난 시커멍ᄒᆞ게 변ᄒᆞ는게 혼 주제 홈직ᄒᆞ다.
(알겠네. 알겠어. 빨리빨리 쌓기만 해라. 하늘을 쳐다보니 새카맣게 변해가는 것이 한 줄기 비가 내릴 것 같다.)

게으른 농부 : 알아서. 시작이 반이렌 헤시난 이제 다 ᄆᆞ친 거나 혼 가진겐게.
(알았네.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 마친 것이나 한 가지이네.)

부지런한 농부 : …….

<삽화>

부지런한 농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볏짚단을 쌓고 있는데, 게으른 농부는 볏짚단을 쌓지 않고 이리저리 흩뜨려 놓는 장면

<해설>

'이레착저레착'은 '마음이나 행동을 하나로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표준어의 '갈팡질팡'이나 '이리저리', '오락가락'에 대응되는 말이다. 이 말은 말을 할 때 일관성이 없이 자꾸 말을 바꾸거나, 일을 할 때 정리나 끝맺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흩뜨려 놓을 때도 사용되기도 하며,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말이다.

<낱말 알아보기>

찍 : (볏)짚

눌 : (낟)가리

눌다 : 차곡차곡 쌓다. 쌓아올리다.

ᄀᆞ닥ᄀᆞ닥ᄒᆞ다 : 차근차근 하다. 조금씩조금씩 하다.

느렁텡이 : 느림뱅이. 느림보.
인칙 : 일찍.
다울리다 : 다그치다. 급히 몰아서 쫓다.
ᄏᆞ찡ᄒᆞ게 : 가지런하게.
주제 : 소나기. 한바탕 내리쏟는 비. 한 번 몰아 지나가는 비나 바람 따위를 세는 단위.

5. 왈캉돌캉(왈가닥달가닥)

장면

며느리 : 에고, 살림도 못해 먹으켜. 밥 먹엉 돌아서민 또 밥 때 뒈영 밥 출려야 뒈곡, 그릇덜도 시쳐야 뒈곡, 서답도 뿔아야 뒈곡……. 휴우, 난 이거 종살이 허레 온 거주 신접살림허레 온 게 아니라.
(에고, 살림도 못하겠구나. 밥을 먹고 돌아서면 또 끼니때가 되어서 밥을 차려야 되고, 그릇들도 씻어야 되고, 빨래도 빨아야 되고……. 휴우, 나는 이거 종살이 하러 온 거지 신혼살림하러 온 것이 아니야.)

시어멍 : 아니, 늰 아직도 그릇 시쳠시냐. 오널은 홀 일도 한디 흔저 ᄒᆞ라.
(아니, 너는 아직도 그릇을 씻고 있느냐? 오늘은 할 일도 많으니 빨리 해라.)

며느리 : 예! 혼자서 바들랑바들랑ᄒᆞ멍 그릇 시치는 거 안 봠수광?
(예! 혼자서 바동바동하면서 그릇을 씻는 것을 안 보십니까?)

시어멍 : 아니! 경헌디 무사 그릇을 경 **왈캉돌캉** 시쳠시냐? 그릇덜 다 부서진다. 술술 시치라. 경ᄒᆞ곡 늰 나가 뭐렌 존소리허난 푸닥거리허듯이 그릇을 경 **왈캉돌캉** 시치는 거가?
(아니! 그런데 왜 그릇을 그렇게 왈가닥달가닥 씻고 있느냐? 그릇들이 다 부서지겠다. 살살 씻어라. 그건 그렇고 너는 내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푸닥거리하듯이 그릇을 그렇게 왈가닥달가닥 씻는 것이냐?)

며느리 : 아니우다. 어머님. 나 혼ᄌᆞ 속상허연 그릇을 박박 시치단 보난 그릇덜이 **왈캉돌캉**헴신게 마씸.
(아닙니다. 어머님. 저 혼자 속상해서 그릇을 박박 씻다 보니 그릇들이 왈가닥달가닥하는 것입니다.)

시어멍 : 기가? 경헌디 그건 아닌 것 답다. 속상헌 게 뭐고. 말해 보라. 늬가 말을 해사 내가 알주.
(그러냐?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 속상한 것이 뭐니? 말해 보거라. 네가 말을 해야 내가 알지.)

며느리 : 맨날 밥 먹엉 돌아서민 밥 출리곡, 그릇덜 시치곡, 서답ᄒᆞ곡……난

놉으로 온거주 서방이영 말 홀 시간도 어수게.
(매일 밥을 먹고 돌아서면 밥을 차리고, 그릇들을 씻어야 되고, 빨래해야 학고 …… 저는 일꾼으로 온 것이지 남편이랑 말 할 시간도 없습니다.)

시어멍 : 게메. 경해도 어떵허느니게. 늬 운명이렌 생각ᄒᆞ멍 살아불라.
(글세. 그래도 어떻게 하겠느냐. 네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삽화

새 며느리가 그릇을 왈가닥달가닥 부딪치면서 씻고 있고, '시어멍'이 곁에서 그릇이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설거지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장면.

<해설>

'왈캉돌캉'은 제주도 전역에서 사용되는 낱말로, **'왈그랑달그랑', '왈각달각'**과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다. '작고 단단한 물건들이 자꾸 서로 거칠게 닿거나 부딪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뜻하며, 표준어 '왈가닥달가닥'에 대응되는 말이다.

<낱말 알아보기>

시쳐야 : 씻어야
서답 : 빨래
한디 : 많은데
바들랑바들랑 : 바동바동. 힘에 겨운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바득바득 쓰는 모양.
기가 : 그런가?
게메 : 글쎄.

◎ 와당와당(와다닥와다닥)

장면

어멍 : 아이고, 어떵사 시끄러운지 정신 사나완 죽어지켜. 철이 아방이 강 아이덜헌티 **와당와당**ᄒᆞ지 말렌 ᄀᆞᆯ아줍써.

(아이고, 어떻게나 시끄러운지 정신이 사나워서 죽겠네. 철이 아버지가 가서 아이들한테 와다닥와다닥하지 말라고 말해 주십시오.)

아방 : 내부러게. 아이덜은 정 들러퀴멍 커야 ᄒᆞ는 거라.

(내버려 둬. 아이들은 저렇게 날뛰면서 커야 하는 거야.)

어멍 : 경헤도 작작 들러퀴어야주게. 저 봅써. **와당와당**ᄒᆞ는 거. 구둘바닥 다 부숴지쿠다.

(그렇다고 해도 웬만히 날뛰어야지. 저 보세요. 와다닥와다닥하는 것. 방바닥이 다 부서지겠습니다.)

아방 : 나둬게. 정 **와당와당**ᄒᆞ는 건 아이덜이 튼튼ᄒᆞ게 커간뎅 ᄒᆞ는 거라.

(나둬. 저렇게 와다닥와다닥하는 것은 아이들이 튼튼하게 커 간다는 거야.)

어멍 : 하이고. 영 아방이 물르난 아이덜이 버르장어시 크는 거 아니꽈.

(아이고. 이렇게 아버지가 무르니까 아이들이 버릇없이 크는 것 아닙니까?)

아방 : 아니 뭐라. 거 누게가 우리 아이덜 버르장엇덴 헴서? 거 누게라? 그 집 아이덜은 얼메나 버릇이시니 보게.

(아니 뭐라고? 그 누구가 우리 아이들이 버릇없다고 하는가? 그가 누구인가? 그 집 아이들은 얼마나 버릇 있는가 보게.)

어멍 : 춤 내. 무사 와들랑와들랑 헴시니. 어디 강 경 말ᄒᆞ지 맙써. 놈덜 들으민 아방만 욕먹읍니다. 체신머리 어시 지 아이덜만 감싼덴 욕허여.

(참 나. 왜 갑자기 화들짝하실까.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들으면 (철이) 아버지만 욕먹습니다. 처신하지 못하고 자기 아이들만 감싼다고 욕합니다.)

아방 : 으음. 알아서 알아서. 그만 ᄀᆞᆫ주.

(으음. 알았어. 알았어. 그만 말하지.)

삽화

방 안에서 여러 아이들이 자꾸 뛰어오르고 쿵쾅거리면서 요란스럽게 장난치고 노는 장면.

<해설>

'와당와당'은 '여럿이 갑자기 자꾸 뛰어가거나 뛰어오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뜻하는 말이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어수선한 소리나 모양'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 말이다. 표준어 '와다닥와다닥'에 대응되는 말로 제주도 전역에서 사용된다.

<낱말 알아보기>

ᄀᆞᆯ아줍써 : 말해 주십시오.
내부러게 : 내버려 두게. 가만 놔두게.
들러퀴멍 : 날뛰면서
누게가 : 누구가
와들랑와들랑 : ①사람이나 동물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자꾸 왈카닥 움직이거나 일어나는 모양. ②상대방의 언행에 갑자기 자꾸 화를 내는 모양.
체신머리 : 채신머리. 처신(處身).

◎ 옹작옹작(옹잘옹잘)

장면

아지망 1 : 아지망! 골체 빌젠 와 보난, 무사 혼자 앉안 **옹작옹작**헴수과?
(아주머니! 삼태기를 빌려고 와 봤더니, 왜 혼자 앉아서 옹잘옹잘 하십니까?)

아지망 2 : 하이고, 아멩 생각해도 복장 터젼 못살크라마씸.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속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아지망 1 : 무사마씸? 경 복장 터질 일이 뭐란 경 **옹작옹작**헌거라마씸?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속 터지는 일이 무엇이기에 옹잘옹잘하십니까?)

아지망 2 : 휴우, 내 애기 ᄒᆞ꼼 들어봅써. 오늘 아칙부터 우리 집 애기아방이 걸름도 내진 안 ᄒᆞ곡 골갱이질도 안 ᄒᆞ연 술 먹엉 좀만 잠수다.
(휴우, 제 이야기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오늘 아침부터 우리 집 아이 아버지가 거름도 내치지 않고 호미질도 안 하고 술만 먹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아지망 1 : 메께라, 무사? 아지방이 영 ᄒᆞ는 건 못 봐신디. 무슨 일 이서나수광?
(어머나! 왜요? 아저씨가 이렇게 하는 것을 못 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지망 2 : 하이고, 말도 맙써. 언치냑은 꿰 풀안 놔 둔 돈 술쩨기 가져간 걸로 노름ᄒᆞ연 몬딱 일런 들어와십디다.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어제저녁은 깨를 팔고 놔 둔 돈을 몰래 가져가서 그것으로 노름을 해서 전부 잃고 들어왔더랍니다.)

아지망 1 : 아고게, 기라? 이거 어떤 일. 아지방이 노름ᄁᆞ장 해서? 하이고, 아지망이 복장 터젼 **옹작옹작**홀 만ᄒᆞᆫ게. 게난 아지방을 그냥 둬수광? 두 손목을 확 끊차불주게.
(어머나! 정말? 이것 어떤 일. 아저씨가 노름까지 했어? 아이고, 아주머니가 속 터져서 옹잘옹잘할 만하구나. 그런데 아저씨를 그냥 뒀습니까? 두 손목을 확 끊어버리지.)

아지망 2 : 대판 싸와수게. 달려들언 허운데기 매어불어수게. 경허난 각시헌티 허운데기 뜯겻덴 굴툭부런 술 먹언 방에서 좀만 자는 거라마씸.
(크게 싸웠습니다. 달려들어서 머리털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 아내에게 머리털을 뜯겼다고 심술부려서 술을 먹고 방에서

잠만 자는 것입니다.)

삽화

'아지망 1'이 앉아서 혼자 투덜투덜하고 있고, '아지망 2'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 장면

<해설>

'웅작웅작'은 '불평이나 원망, 탄식 따위를 입속말로 혼자 계속 재깔이는 소리나 그 모양'을 뜻하는 말로 제주도 전역에서 사용된다. 표준어의 '웅잘웅잘'에 대응되는 말이며, '투덜투덜'과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낱말 알아보기>

줄체 : 삼태기
줄갱이질 : 호미질. 김매기.
메께라 : 어머나. 남의 언행이 너무도 기가 막힐 때에 내는 소리.
언치냑 : 어제저녁
허운데기 : '머리털'을 속되게 이르는 말.
굴툭부련 : 심술부려서. 고집부려서.

◎ **왈랑왈랑/와랑와랑(우렁우렁/우럭우럭)**

장면

아들 : 어멍! 뭐 헴수과? 지난주에 본 학업성취도평가 성적표가 나와수다. 봥 도장찍어줍서.
(어머니! 무엇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본 학업성취도평가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보시고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엄마 : 어디 보게. 게난 점수 잘 나와시냐? 어어어, 점수가 이거 무사?
(어디 보자. 그러면 점수는 잘 나왔니? 어 어 어, 점수가 이것 뭐야?)

아들 : ᄒᆞ쏠 못 봐수다. 다음 시험 땐 잘 볼꺼나 오널은 뭐렌 ᄒᆞ지맙써.
(조금 못 봤습니다. 다음 시험 때는 (시험을) 잘 볼 것이니 오늘은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엄마 : 무시거? 말ᄒᆞ는 상아리보라. 뭐 잘났덴 눈고망 쳐들언 말헴시냐. 이거 수학 50점, 영어 50점이 뭐라. 영 공불 못 허영 일후제 뭐에 써먹을 거라. 느 조롬에 들어간 돈이 얼만디……느 앞날이 왁왁ᄒᆞ다이.
(뭐라고? 말하는 얼굴 표정을 보라. 뭐가 잘났다고 눈동자 쳐들어서 말하고 있니. 이것 수학 50점, 영어 50점이 뭐야.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이 후부터 뭐에 쓸 수 있을 거니? 네 꽁무니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네 앞날이 캄캄하구나.)

아들 : 무사 나가 경 학원에 보내주렝 헤수과? 싫덴 ᄒᆞᆫ 걸 어멍이 가라 가라 ᄒᆞ지 않헤수과.
(왜 저가 그렇게 학원에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싫다고 하는 걸 어머니가 가라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엄마 : 아이고, 요놈의 ᄌᆞ식. 복장 터지는 소리만 헴시니. 느 말 들어가난 얼굴이 **왈랑왈랑**거렴쩌. 잠지팍을 때려사 정신ᄎᆞ리젠 헴시냐. 오널부턴 놀레 갈 생각마랑 공부만ᄒᆞ라이.
(아이고, 요놈의 자식. 속 터지는 소리만 하고 있느냐. 네 말을 듣고 있으니 얼굴이 우럭우럭하다. 볼기를 때려야 정신 차리려고 하느냐? 오늘부터 놀러 갈 생각 말고 공부만 해라.)

아들 : 에이 씨. 나가 속이 **와랑와랑**헴수다. 놀레도 가지 말렌 ᄒᆞ민 난 쉐왕

에 가두어논 부룽이꽈 뭐꽈?
(에이 씨. 제가 속이 우럭우럭합니다. 놀러 가지 말라고 하면 저는 외양간에 가두어 놓은 수소입니까? 뭡니까?)

엄마 : 무시거. 저, 저, 말ᄒᆞ는 상아리 보라. 쯔쯔…….
(뭐라고? 저, 저, 말하는 모습 봐라. 쯔쯔…….)

삽화

'아들'의 50점이라고 쓰인 시험지를 들고 엄마가 아들을 향해 크게 꾸짖으면서 씩씩대고 열을 내는 장면.

<해설>

'왈랑왈랑/와랑와랑'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낱말이다. 제주도 전역에 걸쳐 사용되며, 의성어로도 의태어로도 다 사용되는 낱말이다. 의성어로는 **'왈탕왈탕'**과 같이 사용되는 낱말로 '물이 야단스럽게 끓어오르는 소리'를 뜻하는데, 표준어 '우렁우렁'에 대응된다. 의태어로는 '① 불기운이 세차게 일어나는 모양', '② 술기운이 얼굴에 나타나는 모양', '③ 열이나 화가 점점 치밀어 오르는 모양' 등을 뜻하는데, 표준어 '우럭우럭'에 대응된다.

<낱말 알아보기>

상아리 ; '얼굴'이나 '모습'의 낮춤말.
눈고망 : 눈동자.
일후제 : 이후부터. 이로부터.
조롬 : 꽁무니. 뒤.
왁왁ᄒᆞ다 : 조금도 보이지 않고 어둡다. 캄캄하다.
잠지팍 : '볼기'의 낮은 말.
쉐왕 : 외양간.
부룽이 : 부룩소. 수소.

◎ 움찍움찍(움찍움찍)

장면

갑돌 : 갑순아! 무사 경 **움찍움찍** 놀렘시냐? 무싱거 무서운 거라도 봔?

(갑순아! 왜 그렇게 움찍움찍 놀라고 있니? 어떤 무서운 것이라도 봤어?)

갑순 : 아니. 경헌건 아니고, 늘렛내따문 게워질 거 닮안 촘젠 ᄒᆞ난 ᄌᆞ주 몸을 **움찍움찍**헤졈신게.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비린내 때문에 토할 것 같아서 참으려고 하니까 자주 몸을 움찍움찍하게 되네.)

갑돌 : 게메. 어디서 궤기 썩는 내움살이 풀풀헴쩌. 너른 바당 보멍 기분좋게 데이틀 허젠 헤신디 다 틀려부럿저. 그냥 ᄄᆞᆫ 곳으로 가카?

(그러네. 어디서 고기 썩는 냄새가 풀풀하네. 넓은 바다를 보면서 기분좋게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다 틀려버렸어. 그냥 다른 곳으로 갈까?)

갑순 : 아니, 전딜만 ᄒᆞᆫ게. 우리 저디로 가보게. 저딘 소낭밭 ᄌᆞᄀᆡ · ᄉᆞ디난 솔잎 냄새로 ᄒᆞ영 늘크랑ᄒᆞᆫ 속이 탁 트일거 닮아.

(아니, 견딜 만해. 우리 저기로 가 보자. 저기는 소나무밭 곁이기 때문에 솔잎 냄새로 해서 조금 느끼한 속이 탁 트일 것 같아.)

갑돌 : 경ᄒᆞ카. 어, 갑순아! 이디 와 보라. 이디 조쿠젱기덜 싯저게. 야, 어릴 때 바당에 코 풀락풀락ᄒᆞ멍 궤기 낚으레 왕 조쿠젱기 잡앙 ᄡᅥ사먹던 생각이 남쩌.

(그렇게 할까. 어, 갑순아! 여기로 와 봐라. 여기 작은 소라들이 있어. 야, 어릴 때 바다에 코를 훌쩍훌쩍하면서 고기 낚으러 와서 작은 소라를 잡아서 부숴먹던 생각이 나네.)

갑순 : 어머, 이거 너무 쪼끌락ᄒᆞᆫ게. 이거 ᄡᅥ사봐도 먹을 거 어시켜.

(어머, 이것은 너무 작은데. 이것을 부숴도 먹을 것이 없겠어.)

갑돌 : 기여. 경허고 지금은 초봄이란 바당에 이신 조쿠젱기, 쿠살 ᄀᆞᆮ은 것덜이 다 쭌쭌ᄒᆞᆫ다게. 아멩헤도 여름뒈어사 ᄉᆞᆯ이 올랑 몽알몽알ᄒᆞ고 맛이 싯저.

(그래. 그리고 지금은 초봄이라 바다에 있는 작은 소라, 성게 같은 것

들이 다 홀쭉해. 아무래도 여름이 되어야 살이 올라서 포동포동하고 맛이 있어.)

갑순 : 기이. 게민 우리 이번에랑 여름에 ᄀᆞ찌 휴가 받앙 산으로 놀레가지 말앙 바다로 왕 갯거시 것도 먹으멍 놀게.

(그래?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여름에 함께 휴가를 받아서 산으로 놀러 가지 말고 바다로 와서 해산물도 먹으면서 놀자.)

갑돌 : 응, 알앗저. 경허게.

(응, 알았어. 그렇게 하자.)

삽화

갑순이가 손으로 입을 막고 토할 듯이 어깨를 움찍움찍 들썩이고 갑돌이가 갑순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장면

<해설>

'움찍움찍'은 '몸이나 몸의 일부를 잇따라 움직이는 모양'을 뜻하는 말로 제주도 전역에서 사용되며, 표준어에서도 '움찍움찍'을 사용한다. **'옴찍옴찍'**으로 쓰면 '몸이나 몸의 일부를 작게 자꾸 움직이는 모양'을 뜻하는 말이 된다.

<낱말 알아보기>

늘렛내 : 비린내. 바닷고기 따위에서 나는 냄새.

내움살 : 냄새.

ᄌᆞ ㄲᆞ ㅅ디 : 곁. 가. 가까운 곳.

늘크랑ᄒᆞᆫ : 조금 느끼한 맛이 있는.

풀락풀락ᄒᆞ멍 : 훌쩍훌쩍하면서.

조쿠젱기 : 어린 소라. 작은 소라.

쿠살 : 성게.

쭌쭌ᄒᆞᆫ다 : 홀쭉하다. 아주 가늘다.

몽알몽알ᄒᆞ고 : 포동포동하고.

갯거시 : 갯가. 바닷가.

◎ 오몰락오몰락(오물오물/오무락오무락)

장면

갑순 : 혼자 뭘 경 맛좋게 **오몰락오몰락** 먹으멘? 맛좋은 건 나영 나눵 먹어야 뒈는 거 아니?

(혼자 무엇을 그렇게 맛있게 오물오물 먹으니? 맛있는 것은 나하고 나눠서 먹어야 되는 것 아닌가?)

갑돌 : 어, 갑순이 와시냐? 당연히 나눵 먹어사주게. 물꾸럭 숢은 거 혼 번 먹어보라.

(어, 갑순이 왔니? 당연히 나눠서 먹어야지. 문어 삶은 것 한 번 먹어 봐라.)

갑순 : 물꾸럭? 어디 시난. 바당에 낚시 댕겨 완? 아니면 사 완? 마침 배가 골착ᄒᆞ여신디 잘 되엇저. **오몰랄오몰락** 씹을수록 잘도 베지근ᄒᆞ다.

(문어? 어디서 났니? 바다에 낚시를 다녀 왔니? 아니면 사 왔니?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되었네. 오물오물 씹을수록 무척 맛있다.)

갑돌 : 니추룩 잘 먹는 여자도 어실거여. 난 혼 점씩 먹엄신디 닌 두세 점씩 먹엄신게.

(너처럼 잘 먹은 여자도 없을 거야. 난 한 점씩 먹고 있는데 너는 두세 점씩 먹고 있구나.)

갑순 :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덴 헤신디, 경 추접ᄒᆞ게 먹는 거 가졍 그추룩 말ᄒᆞ느냐?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먹는 것을 갖고 그처럼 말하니?)

갑돌 : 아니, 아니, 난 느 먹는 모습이 하도 곱닥ᄒᆞ게 보연 경 말혼거여게. 하다 섭섭ᄒᆞ게 생각ᄒᆞ지 말라.

(아니, 아니, 난 너 먹는 모습이 너무 예쁘게 보여서 그렇게 말한 거야. 부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갑순 : 알앗저. 경헌디 나추룩 잘 먹는 여자가 살림도 잘 허메. 나 음식도 잘 멩그메.

(알았다. 그런데 나처럼 잘 먹는 여자가 살림도 잘 한다. 나는 음식도 잘 만들어.)

갑돌 : 게민 느 나헌티 시집오젠. 난 니 혼자 멕영 살 자신은 싯저.
(그러면 너 나에게 시집오겠니? 나는 너 혼자 먹여서 살 자신은 있어.)
갑순 : 니 나헌티 청혼혼 거. 흐흐, 멋대가린 엇저마는 좋다. 경허켜.
(너 나에게 청혼한 거야. 흐흐, 멋은 없지마는 좋다. 그렇게 할게.)

삽화

갑돌이와 갑순이가 음식을 오물오물 씹으며 맛있게 먹는 장면

<해설>

'오물락오물락'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의태어로 제주도 전역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① 말을 조금 시원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 안에서 자꾸 중얼거리는 모양', '② 음식물을 입 안에 넣고 시원스럽지 아니하게 조금씩 자꾸 씹는 모양', '③ 입술이나 근육 따위가 자꾸 오므라지는 모양' 등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표준어 '오물오물'에 대응되는 말이다. 그리고 '작은 벌레나 물고기 따위가 한군데에 많이 모여 자꾸 굼뜨게 움직이는 모양'을 의미할 때는 표준어의 '오물오물'이나 '오무락오무락'에 대응되는 말이다.

<낱말 알아보기>

물꾸럭 : 문어
골착ᄒᆞ여신디 : 곯았는데. 배가 고팠는데.
베지근ᄒᆞ다 :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 같은 것이 맛이 있다.
추접ᄒᆞ게 : 더럽고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게.
곱닥ᄒᆞ게 : 곱게. 예쁘게.
멩그메 : 만들어. 만든다.

◎ 옴막옴막(옴폭옴폭)

장면

갑순 : 아이, 복장 터젼 죽어지켜. 누게가 **옴막옴막** 들어가게 눌러부러시냐.
(아이, 속 터져 죽겠네. 누가 옴폭옴폭 들어가게 눌러버렸을까?)

갑돌 : 갑순아! 무사, 무사? 무사 경 두글락두글락헴시냐?
(갑순아! 왜? 왜? 무슨 일로 그렇게 투덜투덜하고 있니?)

갑순 : 나 어떵해? 1주일 내낭 고생 고생허멍 멩글어논 작품인디. 미술 과제로 제출해야 홀 건디 어떻허민 좋아.
(나 어떡해? 1주일 내내 고생 고생하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미술 과제로 제출해야 할 건데 어떡하면 좋아.)

갑돌 : 기이? 누게가 경 숭악흔 짓을 헤시니? 이런 쯔쯔, **옴막옴막** 눌러부난 볼품어신 모냥상아리가 뒈부러신게.
(그래? 누가 그렇게 흉악한 짓을 했을까? 이런 쯔쯔, 옴폭옴폭 눌러버리니까 볼품이 없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네.)

갑순 : 경허난 나 어떵해. 낼모레ᄁᆞ지 제출해사 ᄒᆞ는디, 또시 새로 진ᄒᆞᆨ 개영 멩글엇덴 해도 ᄆᆞ르지 않앙 제출ᄒᆞ지 못 홀 건디게.
(그러니까 나 어떡해. 내일모레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또 새로 진흙을 개어서 만들었다고 해도 마르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 할 건데.)

갑돌 : 음, 경허민 새로 멩글진 못 홀 거난 제목을 ᄒᆞ쏠 특이ᄒᆞ게 붙여불라. 음, '걸작품 훼손'엔 ᄒᆞ는 건 어떵ᄒᆞ니? 저 **옴막옴막** 들어간 웃트레 ᄒᆞ쏠 더 몬지글락몬지글락ᄒᆞ영 나 말흔데로 제목을 경 붙여불라.
(음, 그러면 새로 만들지는 못 할 거니까 제목을 약간 특이하게 붙여버려라. 음, '걸작품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니? 저 옴폭옴폭 들어간 위에다 약간 더 만지작만지작해서 내가 말한 대로 제목을 그렇게 붙여버려.)

갑순 : 야, 거 좋은 생각이여게. 이제 보난 갑돌이 니 상당히 ᄋᆞ망지다이. 처음에 이거 봔 가슴이 는착헨게, 느 말 들으난 이젠 거꾸로 막 지꺼지다. 이거 역발상인게. 잘도 좋은게. 늬 정말로 ᄋᆞ망지다. ᄋᆞ망져. 늬가 경헌 생각 홀 줄을 몰랏저.
(야, 그것 좋은 생각이네. 이제 보니 갑돌이 너 매우 똑똑하다. 처음에 이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는데, 네 말을 들으니 이제 거꾸로 너무 기뻐. 이것은 역발상이네. 굉장히 좋아. 너 정말로 똑똑하다. 똑똑해.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을 몰랐어.)

갑돌 : 웃다가라. 게민 늰 날 그런 생각 못ᄒᆞ는 쭉시로 알아시냐?
(설마, 그러면 너는 나를 그런 생각도 못하는 못난이로 알았어?)
갑순 : 아, 아, 아니여게. 아니여게. 난 경헌 뜻으로 ᄒᆞᆫ 말이 아니여. 늬가 생각을 하도 기똥차게 ᄒᆞ난 웃져주는 말로 ᄒᆞᆫ 거여게.
(아, 아, 아니야.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네가 생각을 너무 기막히게 하니까 (너를) 칭찬하는 말로 한 거야.)

삽화

갑순이가 군데군데 옴폭옴폭 들어간 소조 작품을 갑돌이에게 보이면서 울상을 짓는 장면

<해설>

'옴막옴막'은 제주 전역에서 사용되며,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낱말이다. 그 하나는 '음식물 따위를 입 안에 연이어 넣어 먹는 모양'을 뜻하는데 표준어 '우걱우걱'과 유사한 뜻을 지닌다. 다른 하나는 '여러 군데가 오목하게 폭 들어간 모양'을 뜻하는데 표준어 '옴폭옴폭'에 대응하는 말이다.

<낱말 알아보기>

두글락두글락헴시냐 : 투덜투덜하느냐?
숭악ᄒᆞᆫ : 흉악한. 심보가 몹시 나쁜.
모냥상아리 : '모양새' 낮은 말.
또시 : 또. 다시.
진흑 : 진흙.
웃트레 : 위에. 위쪽에.
몬지글락몬지글락ᄒᆞ영 : 만지작만지작해서.
ᄋᆞ망지다이 : 영리하고 똑똑하구나.
는착헨게 : 갑작스레 놀라서 가슴이 철렁했는데.
지꺼지다 : 기쁘다.
웃다가라 : 이외의 것에 대하여 '설마'의 뜻. 상대방의 언행을 비아냥할 때도

사용하는 감탄사.

쭉시 : 쭉정이.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기똥차게 : '기막히게'를 속되게 이르는 말.

웃져주는 : 웃치는. 실력이나 값 따위를 기준보다 높이 평가하거나 인정하는.

◎ 와상와상(아삭아삭/와삭와삭) ※8컷 만화로 구성할 것!

장면 : 혼 동네 아지망덜의 대화(왼쪽 : 아지망 1, 오른쪽 : 아지망 2)

양! 아지망! 일로 와봅써. 이것 ᄒᆞ쏠 잡숴봅써.(여보세요. 아주머니! 이리로 와 보세요. 이것을 조금 드셔보세요.)	양? 뭐 맛좋은 거 이성 나ᄁᆞ지 불렁 먹으렌 헴수과?(예? 무슨 맛좋은 것이 있어서 나까지 불러서 먹으라고 하세요.)
요거 껍데기 베껸 끓차논 거 ᄒᆞᆫ 번 잡숴봅써.(요것 껍질 벗겨서 끓어놓은 것을 한 번 드셔보세요.)	아고게. 노랑ᄒᆞ게 잘도 잘 ᄋᆞ믄 춤 웨여게. 이건 어디 시난?(어머나. 노랗게 아주 잘 영근 참외구나. 이것은 어디서 났어?)
우리 식구덜끼리 먹젠 지난 봄이 장에서 춤웨씨 사당 우영팟디 갈아수게.(우리 식구들끼리 먹으려고 지난 봄에 장에서 참외 씨를 사다가 텃밭에 갈았어요.)	기라? 게난 하영 열려서?(그래? 그러면 많이 열었어?)
예. 우리 우영팟은 뜬밧이난 산디 우리 식구덜 배 터지게 먹게끔 하영 열아십디다.(예. 우리 텃밭은 부슬부슬한 밭이어서 그런지 우리 식구들이 배 터지게 먹게끔 많이 열었습니다.)	기? 잘도 잘 뒈신게. 경ᄒᆞ지마랑 우리헌티도 춤웰 풀아주심?(그래? 아주 잘 되었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참외를 팔아줄 거야?)

아이고, 아지망도. 이웃끼리 뭘 돈 받앙 풀고사곡 헙니깡. 이거 우선 **와상와상** 씹엉 잡솨봅써. 시땅 집의 갈 때랑 잡술만큼 타드리쿠다.(아이고, 아주머니도. 이웃끼리 뭘 돈을 받아서 팔고사고 합니까. 이것을 우선 아삭아삭 씹어서 드셔보세요. 이따가 집에 갈 때는 드실 만큼 따서 드릴게요.)	기? 하이고 좋은 이웃 둔 덕분에 맛좋은 츰웨 실피 먹어지켜.(정말? 아아, 좋은 이웃을 둔 덕분에 맞좋은 참외를 실컷 먹겠네.)
먹어보난 맛이 어떻허꽈?(먹어보니 맛이 어떻세요?)	씹는 것도 **와상와상**ᄒᆞ고, 맛도 둘코롱ᄒᆞᆫ게 잘도 맛이신게.(씹는 것도 와삭와삭하고, 맛도 달콤한 것이 매우 맛이 있네.)
아지망! 집의 고치 이수가? 없덴 ᄒᆞ민 고치도 ᄒᆞ꼼 탕 드리쿠다.(아주머니! 집에 고추 있어요? 없다고 하면 고추도 조금 따서 드릴게요.)	게난 고치도 심거서?(그러면 고추도 심었어?)
예게. 츰웨 갈멍 어염에 고치도 심거신디, 것도 낭마다 자락자락 잘여란 이제 막 익엄수다.(예. 참외를 갈면서 옆에 고추도 심었는데, 그것도 나무마다 주렁주렁 잘 열어서 이제 막 익고 있어요.)	기라? 경허민 고치도 ᄒᆞᆫ 줌만 줘. 오널 아지망네 덕분에 츰웨랑 고치랑 잘 먹게 뒈신게.(그래? 그러면 고추도 한 줌만 줘. 오늘 아주머니네 덕분에 참외도 고추도 잘 먹게 되었네.)

<해설>

‘와상와상’은 ‘연하고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 따위를 보드랍게 베어 물 때 자꾸 나는 소리’를 뜻하며 표준어 ‘아삭아삭’에 대응하는 낱말이다.

표준어 ‘와삭와삭’에 대응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마른 가랑잎이나 얇고 빳빳한 물건이 자꾸 서로 스치거나 바스러지는 소리’, ‘과일이나 과자 따위를 자꾸 베어 무는 소리’의 의미이다.

<낱말 알아보기>

ᄒᆞ쏠 : 조금. 약간.

으믄 : 야문. 영근. 알맹이가 가득 찬.

우영팟 : 집 가까이에 또는 집 울타리 안에 있는 텃밭.

뜬밧 : 차지거나 끈끈한 기가 조금도 없는 부슬부슬한 흙이 깔려있는 밭.

실피 : 실컷.

어염 : 옆. 가. 근처.

◎ **자락자락(주렁주렁)**

<삽화>

귤이 주렁주렁 열어 있는 장면

아버지: 귤 밧듸 강 봐시냐?

(귤 밭에 가서 보았느냐?

나: 강 봐신듸 올핸 올메 안 올아십디다.

(가서 봤는데 올해는 열매 안 열었습니다.)

아버지: 작년엔 낭마다 **자락자락** 올아선게.

(작년에는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었는데.)

나: 어떵 ᄒᆞ연 올핸 올메 **자락자락** 안 올아신고 양?

(어떻게 해서 올해는 열매 **주렁주렁** 안 열었습니까?)

아버지: 올메 ᄋᆞ는 낭덜은 해마다 자락자락 올지 안ᄒᆞᆫ다. **자락자락** 올 때도 잇고 안 올 때도 잇쩌. 올핸 귤 고장 피젱 홀 때 날이 하영 얼엇쩌. 경ᄒᆞ난 고장 하영 필 리가 이시냐?

(열매 여는 나무들은 해마다 주렁주렁 열지 않는다. **주렁주렁** 열 때도 있고, 안 열 때도 있지. 올해는 귤 꽃 피려고 할 때 날씨가 많이 추웠지. 그러니까 꽃 많이 필 이유가 있느냐?)

나: 고장 하영 피어사 올메 **자락자락** 올암신게 양?

(꽃 많이 피어야 열매 **주렁주렁** 여는구나 예?

아방: 말이엔 ᄀᆞᆯ암시냐? 혹교에서 무신거 베와시냐?

(말이라고 말하느냐? 학교에서 무엇 배웠느냐?)

나: 올핸 비도 하영 왓지 양?

(올해는 비도 많이 왔지 예?)

아방: 고장 필 때 비 하영 오민 올메도 안 올곡, 귤낭에도 좋지 안ᄒᆞ여.

(꽃 필 때 비 많이 오면 열매도 안 열고, 귤나무에도 좋지 않아.)

나: 이제사 농민덜 ᄆᆞ음 알아지쿠다.

(이제야 농민들 마음 알아지겠다.)

아방: 우리 ᄀᆞ튼 농민덜은 올메 자락자락 올아사주. 경헤야 ᄆᆞ음이 지꺼진다.

(우리 같은 농민들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어야지. 그래야 마음이 기쁘다.)

<해설>

의태어는 소리가 아닌 것, 즉 비청각적인 감각을 청각 인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말을 가리킨다. 즉 시각, 촉각, 미각 등을 통해 감지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다.

‘자락자락’은 표준어로 ‘주렁주렁’이다. ‘주렁주렁’은 열매가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을 나타낸 의태어이다. 특히 ‘자락자락’은 지역에 따라 ‘지랑지랑’, ‘지락지락’이라고 하여, 어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낱말 알아보기>

자락자락: 주렁주렁
올다: 열다
고장: 꽃
올메(實): 열매
하영: 많이
피젱: 피려고

◎ **주왁주왁(기웃기웃)**

<삽화> 학생이 선생의 눈을 피해 고부하는 학생에게 기웃기웃 하는 장면

선생님: 공부 실프글랑 옆이 혹생이영 말 ᄀᆞᆮ지 말라.
(공부 싫으면 옆에 학생과 말 하지 말라.)

학생: 알아수다. 말만 ᄀᆞᆮ지 안 ᄒᆞ민 뒈지 양?
(알았습니다. 말만 하지 안 하면 되지 예?

선생: 말이옌 ᄀᆞᆯ암시냐?
(말이라고 말하느냐?

학생: 야의 양, 말은 ᄀᆞᆮ지 안 헴신디, **주왁주왁** ᄒᆞ멍 공부ᄒᆞ는 거 방해헴수게.
(이아이 예, 말은 하지 안 하는데, **기웃기웃** 하며서 공부하는 것 방해합니다.)

선생: 공부 실프글랑 ᄀᆞ만이 이시민 오족 좋아. 무사 **주왁주왁** 헴신지 모르키여.
(공부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오죽 좋아. 왜 **기웃기웃** 하는지 모르겠어.)

학생: 나도 잘 모르쿠다. 어떵 ᄒᆞ연 놈 ᄒᆞ지 말렌 ᄒᆞᆫ 행동만 헤여 점신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여 남이 하지 말라고 한 행동만 하여지는지.)

선생: 경 ᄒᆞ난 정신 바짝 출령 선생님 ᄀᆞᆮ는 말 잘 들어산다. 경 헤야 느네 부모도 지꺼질 거 아니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선생님 하는 말 잘 들어야 한다. 그래야 너네 부모도 기꺼할 거 아니가?

학생: ᄇᆞ른 말이우다. 요새 아이덜은 말도 안 들으멍, 무사 **주왁주왁** ᄒᆞ멍 허천바렘신디.
(바른 말입니다. 요새 아이들은 말도 안 들으면서, 왜 **기웃기웃** 하면서 다른 곳을 보는지.)

선생: 공부 실퍼부난 **주왁주왁** 헴주. ᄒᆞ나에만 집중ᄒᆞ민 이런 행동 안 ᄒᆞ주. 관광객덜이나 **주왁주왁** ᄒᆞ멍 구경ᄒᆞ는 거주, 혹생덜이 주왁주왁 ᄒᆞ민 안 뒈여. 멩심ᄒᆞ라.
(공부 싫으니까 **기웃기웃** 하고 있지. 하나에만 집중하면 이런 행동 안 하지. 관광객들이나 **기웃기웃** 하면서 구경하는 것이지. 학생들이 기웃

기웃 하면 안 되어. 명심하라.)

<해설>
‘주왁주왁’은 지역에 따라 ‘주엇주엇’으로도 쓰이며, 표준어로는 ‘기웃기웃’이고, 기웃거리는 모양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의태어이다. 의태어는 어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작은말은 ‘갸웃갸웃’, 센말은 ‘끼웃끼웃’이다.

<낱말 알아보기>
주왁주왁: 기웃기웃
실프다: 싫다
곧다: 말하다
~옌: ~(이)라고
출리다: 차리다
허천바레다: 다른 곳을 보다.
① 기운이나 정신 따위를 가다듬어 되찾다.
② 물건이나 음식 따위를 준비하다.

◎ **질학질학(질척질척)**

<삽화> 친구들과 함께 질척질척한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장면.

나: 넬 운동장에 축구 허레 가게.

(네일 운동장에 축구 하러 가자.)

친구: 오널 비 하영 오켄 헨게. 넬은 운동장 **질학질학** 홀 거 아니?

(오늘 비 많이 오겠다고 해라. 네일은 운동장 **질척질척** 할 거 아니?)

나: 운동장 **질학질학** ᄒᆞ민 어떵 ᄒᆞ나? 옛날 사롬덜은 운동장 어실 때도 살앗주게.

(운동장 **질척질척** 하면 어떻게 하나? 옛날 사람들은 운동장 없을 때도 살았지.

친구: 경 사 ᄒᆞ주만, 운동장 **질학질학** ᄒᆞ민 옷도 시커멍ᄒᆞ고, 신도 꾸작꾸작 ᄒᆞ고, 몸도 느릇ᄒᆞ고…….

(그렇기야 하지만, 운동장 **질척질척** 하면 옷도 시커멓고, 신도 꾸작꾸작 하고, 몸도 느릇하고…….)

나: 경 ᄒᆞᆫ 건 알암져만, 넬 밧긔 시간 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알고 있지만, 네일 외에는 시간 없어.)

친구: 경 ᄒᆞᆫ디 우리 하르버진 옛날 도새기 오좀푸께로 축구 헤낫땐 ᄀᆞ라라. 잔치 때 뒈민 도새기 문딱 잡을 때ᄁᆞ지 지다렷당 오좀푸께 주민, 그걸 불엉 축구공 멩ᄀᆞᆯ앙 축구 ᄒᆞ멍 놀아땐 헤라.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 돼지 오줌보로 축구 해났다고 말해라. 잔치 때 되면, 돼지 모두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 오줌보 주면 그것을 불어 축구공 만드어 축구 하며 놀았다고 해라.)

나: **질학질학ᄒᆞᆫ** 운동장에서 오좀푸께 축구공으로 축구 ᄒᆞ는 걸 셍각해 보민 재미날 꺼라.

(**질척질척한** 운동장에서 오줌보 축구공으로 축구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재미날 것이다.)

친구: ᄀᆞᆯ으나 마나 온 몸이 시커멍ᄒᆞᆯ 거라게.

(말하나 마나 온 몸이 시커멓게 될 것이다.)

나: 요즈음 ᄒᆞ교 운동장 보난 문딱 잔디 축구장이란게.

(요즘 학교 운동장 보니까 모두 잔디 구장이더라.

친구: 축구만 ᄒᆞ젠 ᄒᆞ민 ᄆᆞ음 놩 헤지커라.
(축구만 하려고 하면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해설>
'질학질학'의 표준어는 '질척질척'이고, 흙과 반죽 등이 물기가 많아 진 촉감을 주는 모양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의태어이다. '질척질척'의 작은말은 '잘착잘착'이다.

<낱말 알아보기>
질학질학: 질척질척
넬: 네일
어실 때: 없을 때
오좀푸께: 오줌보
시커멍ᄒᆞ다: 시커멓다
ᄆᆞ음: 마음
느릇ᄒᆞ다: ① 맥이 풀리거나 고단하여 몹시 기운이 없다.
② 물건의 한 쪽 끝이 아래로 늘어지다.

◎ **차작차작(짝짝)**

<삽화> 발 들렁 걷지 않고 차작차작(짝짝) 신을 끄는 장면

딸: 신을 신 어선, 신 ᄒᆞ나 사줍서,
(신을 신 없어서, 신 하나 사주세요.
어머니: 발에 맞인 신 상 신으라.
(발에 맞는 신을 사서 신어라.)
딸: 무사마씸.
(왜요.)
어머니: 느 신 신엉 걸으는 걸 보민 무사 그추룩 **차작차작** 소리 남신지 모르키여. 궤양 걸어사 뒐 건디.
(너 신을 신어 걷는 것을 보면 왜 그처럼 **짝짝** 소리 나는지 모르겠어. 고이 걸어야 될 것인데.)
딸: 신만 사주민 궤양 걸으쿠다.
(신만 사주면 고이 걷겠어요.)
어머니: 옛날 사롤덜은 신을 신어신지 몰르게 걸어서. 소리 안 낫주. 그추룩 **차작차작** 신으민 버르장머리 업덴 놈이 집이 데려가젠 안 ᄒᆞ여.
(옛날 사람들은 신발을 신었는지 모르게 걸었지. 소리가 안 났지. 그처럼 **짝짝** 신으면 버릇 없다고 남의 집에서 데려가려고 안 하지.
딸: 발 들렁 걸으쿠다. 경 ᄒᆞ민 차작차작 신 끗지 안 홀 거 아니꽈?
(발 들러서 걷겠어요. 그렇게 하면 짝짝 신발을 끗지 안 할 것 아닙니까?)
어머니: 우리 뚤 잘 셍각헴신게.
(우리 딸 잘 생각하고 있네.)
딸: 이제부턴 놈이 말 ᄀᆞ를 짓 ᄒᆞ지 안ᄒᆞ쿠다. 멩심ᄒᆞ쿠다. 경 ᄒᆞ고 공부도 하영 ᄒᆞ영 좋은 고등ᄒᆞ교 가젠마씸.
(이제부터는 남이 말할 짓 하지 않겠어요. 명심하겠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해요.
어머니: 놈이 봥 실은 건 ᄒᆞ지 말아산다. 항상 ᄇᆞ른 행동만 ᄒᆞ라.
(남이 보아서 싫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바른 행동만 하라.)

<해설>

‘차작차작’의 표준어는 ‘짝짝’이며, 신 따위를 가볍게 끌며 걷는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이다. 의성어는 어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짝짝’의, 큰말은 ‘쩍쩍’, 거센말은 ‘척척’이다. 예를 들면 발 들렁 걸으라. 차작차작 신 끗지 말라. (발을 들어서 걸어라. 짝짝 신발을 끌며 걷지 마라.) 등에 쓰인다.

<낱말 알아보기>

차작차작: 짝짝
ᄒᆞ나: 하나
상: 사서
궤양: 고이
그추룩: 그처럼
버르장머리: 버릇

◎ ᄎᆞᆷᄎᆞᆷ(차츰차츰)

<삽화> 한 학생이 차츰차츰 성적을 올리는 장면

아버지: 공부 하영 헴시냐?

(공부 많이 하느냐?)

아들: 올 여름은 어떵 더운지 공부헤도 성적 올르는 거 닮으지 안 허우다.

(올해 여름은 어떻게 더운지 공부해도 성적 오르는 것 닮지 안 해요.)

아버지: 혼꺼번에 성적 올리젠 헷덴 성적 올르는 거 아니여. 일 홀 때추룩 ᄎᆞᆷᄎᆞᆷ 헤사 혼다.

(한꺼번에 성적 올리려고 했다고 성적 오르는 것 아니지. 일 할 때처럼 차츰차츰 해야 한다.)

아들: 게메마씸. 더워부난 이제부턴 **ᄎᆞᆷᄎᆞᆷ** 공부헤사쿠다.

(그러게요. 더우니까 이제부터는 **차츰차츰** 공부해야겠어요.

아버지: 옛날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말 알아지크냐? 무신 거 멩글젠 ᄒᆞ민 기초가 중요ᄒᆞ주.

(옛날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을 알겠느냐? 무슨 것 만들려고 하면 기초가 중요하지.)

아들: 공부홀 때도 **ᄎᆞᆷᄎᆞᆷ** 생각ᄒᆞ멍 헤사 될 건디, 막 서둘렁 ᄒᆞ젠 ᄒᆞ난 안 뒈는 거구나 양.

(공부할 때도 **차츰차츰**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인데, 막 서둘러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구나 예)

아버지: 집 지슬 때 모살 우이 집 지서 보라. 얼마 안 이성 멜라질 거여.

(집 지을 때 모래 위에 집 지어 보라. 얼마 안 있어 무너질 거여.)

아들: 아버지 ᄀᆞᆯ아준 말 잘 들엇당 넬부터랑 ᄎᆞᆷᄎᆞᆷ 공부ᄒᆞ영 성적 올리쿠다.

(아버지 말해준 말 잘 들었다 네일부터는 차츰차츰 공부해서 성적 올리겠어요.

아버지: 모든 학부모덜 보민 ᄌᆞ식 공부밧긔 몰람선게. 공부는 경 중요혼 거 아니여. 공부보단 건강이 중요ᄒᆞ주. 건강ᄒᆞ지 안으민 공분 허젠 헤도 못 ᄒᆞ여. 공부랑 ᄎᆞᆷᄎᆞᆷ ᄒᆞ라. 잘 귀 담앙 들으라.

(모든 학부모들 보면 자식 공부밖에 모르고 있어. 공부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공부보다는 건강이 중요하지. 건강하지 않으면 공부는 하려고 해도 못 하지. 공부는 차츰차츰 하라. 잘 귀 담아서 들으라.)

<해설>

‘ᄎᆞᆷᄎᆞᆷ’은 지역에 따라 ‘ᄎᆞᄎᆞᆷ’으로도 쓰이며, 표준어는 ‘차츰차츰’이고, 급하지 않게 차차 앞으로 나아가는 모양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의태어이다. 예를 들어 ᄎᆞᆷᄎᆞᆷ 공부ᄒᆞ난 성적 올라감수다. (차츰차츰 공부하니까 성적 올라갑니다.) 등에 쓰인다.

<낱말 알아보기>

ᄎᆞᆷᄎᆞᆷ: 차츰차츰
무신 거: 무슨 것
지스다: 짓다
말므다: 닮다
게메마씸: 그러게요
멜라지다: 무너지다

◎ **코롱코롱(콜콜)**

<삽화> 할머니 옆에서 손자가 코롱코롱(콜콜) 잠자는 모습

할아버지: 삭삭 더운디 손지덜 데령 언제 내려올 거고?
(매우 더운데 손자들 데리고 언제 내려올 건가?)
아들: 넬 내려가젠 헴수다.
(네일 내려가려고 해요.)
할아버지: 물애긴 **코롱코롱** 좀 잘 자느냐?
(물아기는 **콜콜** 잠 잘 자느냐?)
아들: **코롱코롱** 좀잘 때도 잇고 양, 경 ᄒᆞ지 안 홀 때도 이서마씸.
(**콜콜** 잠잘 때도 있고 예, 그렇지 안 할 때도 있어요.)
할아버지: **코롱코롱** 좀 잘 자불어사 여름 감기 안 걸리곡, 온 집안이 펜안홀 건디.
(**콜콜** 잠 잘 자야 여름 감기 안 걸리고, 온 집안이 편안할 것인데.)
아들: 게메마씸. 좀 자는 거 ᄆᆞ음과 뜻대로 뒈는 거꽈?
(그러게요. 잠 자는 것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할아버지: 넬 ᄌᆞ냑이랑 다덜 내려오민 요디 강 도새기 궤기나 궝 먹게.
(네일 저녁에는 다들 내려오면 여기 가서 돼지 고기나 구워서 먹지.)
아들: 서울서도 제주도 검은 도새긴 맛 좋덴 소문나서마씸.
(서울서도 제주도 검은 돼지는 맛 좋다고 소문났어요.)
할아버지: 제주도 온 관광객덜도 젤 문저 춪는 건 검은 도새기 궤기주.
(제주도 온 관광객들도 제일 먼저 찾는 것은 검은 돼지 고기지.)
아들: 검은 도새기 궤길 먹젠 ᄒᆞ민 애기 때문에 먹어지카마씸?
(검은 돼지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아기 때문에 먹어지겠어요?)
할아버지: 거긴 애기덜 노는 디도 잇고, 물애기 좀자는 디도 잇저. 우리 손진 거기서 **코롱코롱** 좀 잘 잘 거여. 경 ᄒᆞ고 물애기 좀 잘 제우멍 건강ᄒᆞ게 키와산다.
(거기는 아기들 노는 곳도 있고, 물아기 잠자는 곳도 있지. 우리 손자는 거기서 **콜콜** 잠 잘 잘 거여. 그렇게 하고 물아기 잠 잘 제우며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

<해설>

‘코롱코롱’의 표준어는 ‘콜콜’이며, 어린애가 곤하게 잘잘 때 코를 연해 고는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이며, ‘쿠룽쿠룽’은 ‘코롱코롱’의 큰말로 표준어는 ‘쿨쿨’이며, 곤하게 잠잘 때 연이어 코를 세게 고는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이다.

<낱말 알아보기>

코롱코롱: 콜콜　　좀: 잠

도새기: 돼지　　궤기: 고기

즈냑: 저녁　　춪다: 찾다

물애기: 물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몸이 굳지 않은 아이.

◎ **콜롱콜롱(콜록콜록)**

<삽화> 감기 걸려서 콜롱콜롱(콜록콜록)하는 장면

어머니: 좀잘 땐 이불 잘 더펑 자라. 이불 잘 더프지 안 ᄒᆞ민 감기 걸린다.
(잠잘 때는 이불 잘 덮어서 자라. 이불 잘 덮으지 안 하면 감기 걸린다.)

딸: ᄒᆞᆫ여름이난 혼이불 더펑 자쿠다.
(한여름이니까 홑이불 덮어서 자겠어요.)

어머니: 뚜난 딘 안 더퍼도 베엔 잘 더펀산다. 경 헤사 감기 안 걸리곡, 지침 소리도 **콜롱콜롱** 안 ᄒᆞ여.
(다른 곳엔 안 덮어도 배엔 잘 덮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감기 안 걸리고, 기침 소리도 **콜록콜록** 안 하지.)

딸: 멩심ᄒᆞ영 베에 이불 잘 더펑 자쿠다.
(명심하여 배에 이불 잘 덮어서 자겠어요.)

어머니: 아적 일어낭 보난 어떵 ᄒᆞ연산디 이불 발로 막 차부러선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하였는지 이불 발로 마구 찼더라.)

딸: **콜롱콜롱** ᄒᆞ멍 지침 소리 막 남수다. 못 전뎐 죽어지쿠다.
(**콜록콜록** 하며 기침 소리 마구 났어요. 못 견디어 죽겠어요.)

어머니: ᄀᆞ만시라. 약국에 문 열민 약 사당 먹곡, 경 헤도 안 뒈민 돔박지름 먹으민 낫넨 옛날 사롬덜 ᄀᆞ라라. 경 ᄒᆞ고 천식에도 좋덴 헤라.
(가만있어라. 약국에 문 열면 약 사다 먹고, 그래도 안 되면 동백기름 먹으면 낫는다고 옛날 사람들이 말해라. 그리고 천식에도 좋다고 해라.)

딸: 돔박지름 집이 이수광?
(동백기름 집에 있어요?)

어머니: 작년에 돔박낭 을메 타단 놔뒷단, 요자기 지름 빤 놔뒷져. 옛날 약 어실 땐 조상덜이 자연에서 약 얻는 지혜가 대단헷주.
(작년에 동백나무 열매 따다가 놓았다가 요사이 기름 빼어 놓아두었지. 옛날 약 없을 때는 조상들이 약 얻는 지혜가 대단했지.)

딸: 옛날 사롬덜 살아왓던 지혠 대단ᄒᆞ여마씸.
(옛날 사람들 살아왔던 지혜는 대단해요.)

<해설>

‘콜롱콜롱’은 표준어로 ‘콜록콜록’이이며, 감기가 걸려 연이어 콜록거리는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이다. ‘콜록’은 부사로서, 입을 오므리고 가슴이 울리게 내는 기침 소리이가. 이 말이 큰말은 ‘쿨룩’이다. 그래서 ‘콜롱콜롱’이 큰말은 ‘쿨룩쿨룩’이라 할 수 있다.

<낱말 알아보기>

콜롱콜롱: 콜록콜록
더프다: 덮다
멩심ᄒᆞ다: 명심하다
지침: 기침
돔박낭: 동백나무
돔박지름: 동백기름
전디다: 견디다

◎ **ᄐᆞᄃᆞᆯᄐᆞᄃᆞᆯ(도톨도톨)**

<삽화> 나무 깎인 것이 ᄐᆞᄃᆞᆯᄐᆞᄃᆞᆯ(도톨도톨)한 장면

나: 집 짓젠 ᄒᆞ민 어떤 거떨 이서사 뒈코마씸?
(집 지으려고 하면 어떤 것들 있어야 되어요?
목수: 낭도 이서사 뒈곡, 흑도 이서사 뒈곡…….
(나무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나: 낭은 잘 깎아사 뒐 거 아니꽈?
(나무는 잘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목수: 집 멩글 낭은 **ᄐᆞᄃᆞᆯᄐᆞᄃᆞᆯ** 가끄민 안 뒈곡, 멘짝ᄒᆞ게 깎아사 뒌다.
(집 만들 나무는 **도톨도톨** 깎으면 안 되고, 평평하게 깎아야 된다.)
나: 어떤 낭들이 이서사 집이 뒈여마씸?
(어떤 나무들이 있어야 집이 되나요?
목수: 서리, 포, 문지방, 상ᄆᆞ르영 하영 이서사 뒈여. 서린 **ᄐᆞᄃᆞᆯᄐᆞᄃᆞᆯ** 깎아도 뒈주만, 포, 문지방, 상ᄆᆞ른 눈으로 항시 봐사 뒐 거난 **ᄐᆞᄃᆞᆯᄐᆞᄃᆞᆯ** ᄒᆞ영은 안 뒈주.
(서까래, 보, 문지방, 용마루하고 많이 있어야 되지. 서까래는 **도톨도톨** 깎아도 되지만, 보, 문지방, 용마루는 눈으로 항상 보아야 될 것이니까 **도톨도톨** 해서는 안 되지.
나: 경 ᄒᆞ고 벡ᄇᆞ름은 뭘로 볼라수광?
(그렇게 하고 바람벽은 무엇으로 발랐습나까?
목수: 요즘은 모살 가정 집 지섬주만, 옛날 벡ᄇᆞ름 ᄇᆞ를 땐 흑 가정 찍이나 보리낭 썰엉 물이영 잘 버무령 손으로 벡ᄇᆞ름에 볼라마씸.
(요즘은 모래 가져서 집 짓고 있지만, 옛날 바람벽 바를 땐 흙을 가져서 짚이나 보릿단 썰어서 잘 버무려서 손으로 바람벽에 발랐어요.)
나: 흑 버무린 거 **ᄐᆞᄃᆞᆯᄐᆞᄃᆞᆯ** ᄒᆞ게 ᄇᆞ르민 안 뒈지 양?
(흙 버무린 것 **도톨도톨** 하게 바르면 안 되지 예?
목수: 말이엔 ᄀᆞᆯ암시냐? 멘짝ᄒᆞ게 볼라산다.
(말이라고 말하느냐? 평평하게 발라야 한다.)

<해설>

‘ᄐᆞ돌ᄐᆞ돌’의 표준어는 ‘도톨도톨’이며, 뮬건의 거죽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여 매끈하지 않은 모양을 나타낸 의태어이다. 예를 들어 서린 ᄐᆞ돌ᄐᆞ돌 깎아도 뒈주만, 포는 눈으로 항시 봐사 뒐 거난 ᄐᆞ돌ᄐᆞ돌 ᄒᆞ영은 안 뒈주.(서까래는 도톨도톨 깎아도 되지만, 보는 눈으로 항상 보아야 될 것이니까 도톨도톨 해서는 안 되지.) 등에 사용된다.

<낱말 알아보기>

ᄐᆞ돌ᄐᆞ돌: 도톨도톨
ᄇᆞ르다: 바르다
가끄다: 깎다
낭: 나무
멘짝ᄒᆞ다: 평평하다
벡ᄇᆞ름: 바람벽

◎ **ᄑᆞᆯᄑᆞᆯ(펄펄)**

<삽화> 겨울에 눈이 펄펄 내리는 장면

나: 옛날엔 눈 하영 ᄂᆞ려신디, 요즘은 지구가 더워부난 눈 하영 ᄂᆞ리지 안ᄒᆞ여마씸.

(옛날에는 눈이 많이 내렸는데, 요즘은 지구가 더우니까 눈 많이 내리지 않아요.)

할아버지: 텔레비전 보난 지구가 하영 더웜젠 ᄀᆞ라라.

(텔레비전 보니까 지구가 많이 덥다고 말해라.)

나: 옛날 눈 ᄂᆞ릴 때 ᄌᆞ미난 얘기 ᄒᆞ꼼 ᄀᆞ라줍서.

(옛날 눈 내릴 때 재미난 얘기 조금 말해주세요.)

할아버지: 눈 ᄒᆞ민 험벅눈도 잇고, ᄉᆞ레기눈도 잇주. 험벅눈은 ᄇᆞ름 어실 때 ᄂᆞ리곡, ᄉᆞ레기눈은 ᄇᆞ름 하영 불 때 ᄂᆞ리는 거주.

(눈 하면 함박눈도 있고, 싸라기눈도 있지. 함박눈은 바람이 없을 때 내리고, 싸라기 눈은 바람 많이 불 때 내리는 것이지.)

나: 험벅눈은 어떵 ᄂᆞ려마씸?

(함박눈은 어떻게 내려요?)

할아버지: ᄀᆞ만시라. 험벅눈 ᄒᆞ꼼씩 ᄂᆞ리는 걸 **ᄑᆞᆯᄑᆞᆯ** ᄂᆞ렴젠 ᄒᆞ고, 하영 ᄂᆞ리는 걸 팡팡 ᄂᆞ렴젠 ᄒᆞᆫ다.

(가만있어라. 함박눈 조금씩 내리는 것을 **펄펄** 내린다고 하고, 많이 내리는 것을 펑펑 내린다고 한다.)

나: 경 ᄒᆞ고 험벅눈 ᄂᆞ릴 때 ᄌᆞ미난 얘기 ᄒᆞ꼼 헤줍서?

(그리고 함박눈 내릴 때 재미난 얘기 조금 해주세요?

할아버지: 험벅눈이 하영 ᄂᆞ리민 집 앞이서 셍이도 잡앙 먹곡, 골총에 강 꿩코 놩 꿩도 잡아당 먹곡 헷지. 험벅눈 **ᄑᆞᆯᄑᆞᆯ** ᄂᆞ리민 눈 하영 쌓이주. 경 ᄒᆞ민 셍이영 꿩이영 먹을 거 먹으레 집 가차운 디 하영 ᄂᆞ려오주.

(함박눈이 많이 내리면 집 앞에서 새도 잡아서 먹고, 고총(古冢)에 가서 꿩올가미 놓아서 꿩도 잡아다가 먹고 했지. 함박눈 **펄펄** 내리면 눈 많이 쌓이지. 그러면 새 하고 꿩 하고 먹을 것 먹으려고 집 가까운 곳 많이 내려오지.)

나: ᄉᆞ레기눈은 ᄇᆞ름 하영 불 때 ᄂᆞ려마씸?
(싸라기눈은 바람 많이 불 때 내려요?
할아버지: ᄉᆞ레기눈 ᄂᆞ릴 땐 실령 죽어진다. 실령 밧긔디 나가지 못 ᄒᆞ주.
(싸라기눈 내릴 때는 차가워서 죽어진다. 차가워서 밖에 나가지 못 하지.)

<해설>

'ᄑᆞ뜰ᄑᆞ뜰'의 표준어는 '펄펄'이고, 함박눈이나 종이 조각 같은 것이 천천히 나부끼면서 떨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의태어이다. 또한 '펄펄'은 많은 물이 넓은 면적으로 자꾸 용솟음치면서 끓는 모양과 온돌방이나 몸이 몹시 다는 모양을 나타내기도 한다.

<낱말 알아보기)

ᄑᆞ뜰ᄑᆞ뜰: 펄펄
ᄉᆞ레기눈: 싸라기눈
ᄇᆞ름: 바람
실렵다: 차가운 느낌이 있다.
험벅눈: 함박눈
ᄂᆞ리다: 내리다
밧긔디: 밖에
셍이: 새

◎ 헤뜩헤뜩(희뜩희뜩)

<삽화> 젊은이가 머리가 헤뜩헤뜩(희뜩희뜩)한 장면

딸: 아버지, 요즘 걱정 하영 이신 거 닮으우다.
(아버지, 요즘 걱정 많이 있는 것 닮아요.)
아버지: 무사 나 데강이가 **헤뜩헤뜩** ᄒᆞ난 경 ᄀᆞ람시냐?
(왜 나 머리가 **희뜩희뜩** 하니까 그렇게 말하느냐?)
딸: 멧 년 전만 헤도 아버지 데강이 검엉헤선게.
(몇 년 전만 해도 아버지 머리가 검었는데.)
아버지: 요즘 걱정ᄒᆞ는 게 ᄒᆞᆫ두 가지가 아니주. 가장 구실도 헤사 뒈곡, 직장에 강 돈도 벌엉 와사 뒈곡…….
(요즘 걱정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가장 구실도 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 돈도 벌어 와야 되고…….)
딸: 아멩 바빠도 놀멍 삽서게. 경 ᄒᆞ민 걱정도 어실 거 아니꽈?
(아무리 바빠도 놀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걱정도 없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 놀멍 살민 누게 밥 멕여 주느냐? 돈 벌어사 너네덜 멕영 살릴 거 아니가?
(놀면서 살면 누가 밥 먹여 주느냐? 돈 벌어야 너희들 먹여 살릴 것 아니가?)
딸: 일 하영 ᄒᆞ멍 걱정ᄒᆞ민 데강이가 **헤뜩헤뜩** ᄒᆞ는 거구나 양?
(일 많이 하면서 걱정하면 머리가 **희뜩희뜩** 하는 거구나 예?
아버지: 나이 먹엄서도 데강이가 **헤뜩헤뜩** ᄒᆞ주. 걱정 하영 ᄒᆞ민 스트레스 받는 디, 스트레스 하영 받으민 데강이가 **헤뜩헤뜩** ᄒᆞᆫ다.
(나이 들어가도 머리가 **희뜩희뜩** 하지. 걱정 많이 하면 스트레스 받는 데, 스트레스 하영 받으면 머리가 **희뜩희뜩** 한다.)
딸: 아버지, 일 ᄒᆞ멍 스트레스 받지 말아사쿠다.
(아버지, 일 하며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겠어요,)
아버지: 스트레스 안 받젠 ᄒᆞ영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아니고, 집안에 근심 걱정이 어서사주. 너도 ᄒᆞᆨ교에서 공부ᄒᆞ멍 스트레스 받지 말아산다.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여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아니고, 집안에 근심 걱정이 없어야지. 너도 학교에서 공부하며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한다.)

<해설>

‘헤뜩헤뜩’의 표준어는 ‘희뜩희뜩’이고, 검은 머리 사이에 흰 머리가 군데군데 뒤섞여 얼비치는 모양을 나타낸 의태어이다. 예를 들어 데강이가 헤뜩헤뜩 보염쩌. (머리털이 희뜩희뜩 보인다.) 등이 있다.

<낱말 알아보기>

헤뜩헤뜩: 희뜩희뜩
데강이: 머리
아멩: 아무리
멕이다: 먹이다
어서사주: 없어야지
달무다: 닮다

◎ 화륵화륵(화륵화륵)

<삽화> 책꽂이에 있는 책을 화륵화륵(화륵화륵) 찾는 장면

딸: 책상 우이 국어책 안 봐수광?
(책상 위에 국어책 안 봤어요?

어머니: 내 무사 책상 우이 가느니? 야인 혹교에 가젠 ᄒᆞ민 **화륵화륵** 잘 ᄒᆞ여.
(내가 왜 책상 위에 가느냐? 아이는 학교에 가려고 하면 **화륵화륵** 잘 하여.)

딸: 오널 국어책 검사ᄒᆞ켄마씸. 이디 왕 확 춪아줍서.
(오늘 국어책 검사하겠다고요. 이곳 와 확 찾아주십시오.)

어머니: 준비성 ᄒᆞ나 어시 **화륵화륵** 잘 ᄒᆞ염신게. **화륵화륵** ᄒᆞ민 국어책 못 춪인다. 언치냑 공부ᄒᆞᆫ 거 셍각ᄒᆞ멍 ᄎᆞ근ᄎᆞ근 춪아사 ᄒᆞ주.
(준비성 하나 없이 **화륵화륵** 잘 하고 있어. **화륵화륵** 하면 국어책 못 찾는다. 어제저녁 공부한 거 생각하며 차근차근 찾아야 하지.)

딸: 어머닌 춪아주진 안 ᄒᆞ곡, 더 부에나게만 헴수다. 안 춪아주클랑 저레 갑서.
(어머니는 찾아주지는 안 하고, 더 화나게만 하고 있어요. 안 찾아주겠으면 저곳으로 가십시오,)

어머니: 옷도 못 춪앙 ᄒᆞ곡, 신도 못 춪앙 ᄒᆞ곡……. 이레 ᄃᆞ르락 저레 ᄃᆞ르락 **화륵화륵**…….
(옷도 못 찾아서 하고, 신도 못 찾아서 하고……. 이곳으로 달리고 저곳으로 달리고 **화륵화륵**…….)

딸: 국어 선생님 독ᄒᆞᆫ 디…….
(국어 선생님 독한 데…….)

어머니: 국어책 안 가졍 온 혹생덜 매 하영 ᄯᅳ령 버르장머리 고쳐시민 좋키여.
(국어책 안 가져 온 학생들 매 많이 때려 버릇 고쳤으면 좋겠어.)

딸: 우리 어머닌 국어책은 안 춪아주곡, 부에난 죽어지키여.
(우리 어머니는 국어책은 안 찾아주고, 화난 죽어지겠어.

어머니: 아멩 바빠도 ᄎᆞ근ᄎᆞ근 셍각ᄒᆞ멍 물건덜을 춪아사주. 경 헤사 확 춪아진다.
(아무리 바빠도 차근차근 생각하며 물건들을 찾아야지. 그래야 확 찾아진다.)

<해설>

‘화륵화륵’은 지역에 따라 ‘화르륵화르륵’, ‘화륵탁화륵탁’으로도 쓰이며, 표준어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제주인들이 부지런한 혼이 스며있는 제주어이이다. 그 뜻은 당황하여 이리저리 바삐 헤매는 모양이나, 부리나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양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의태어이다.

<낱말 알아보기>

화륵탁화륵탁: 화륵화륵
봐수광?: 봤어요?
촞아주다: 찾아주다
츠근츠근: 차근차근
부에나다: 화나다
언치냑: 어제저녁

◎ **ᄒᆞᆫ들ᄒᆞᆫ들<한들한들>**

#1 어머니: ᄆᆞᄉᆞᆯ 강 오키여.
(마을 갔다 오겠어.)
딸: 재게 옵서 양.
(빨리 오십시오 예.)

#2 딸: 옷 곱들락ᄒᆞ게 입엉 갑서.
(옷 아주 매끈하고 곱게 입어 가십시오.)
어머니: 우인 저고리, 아랜 치메 입으젠.
(위에는 저고리, 아래는 치마 입으려고.)

#3 딸: 문딱 입엇걸랑 저레 걸어봅서.
(모두 입었으면 저곳으로 걸어보십시오.)
어머니: **ᄒᆞᆫ들ᄒᆞᆫ들** 걸엄시냐?
(**한들한들** 걷고 있느냐?)

#4 어머니: 하이힐 신어부난…….
(하이힐 신었으니…….)
딸: 한복엔 고무신 신어사 **ᄒᆞᆫ들ᄒᆞᆫ들** 걸어져마씸.
(한복에는 고무신 신어야 **한들한들** 걸어져요.)

#5 딸: 저레 **ᄒᆞᆫ들ᄒᆞᆫ들** 걸어봅서.
(저곳으로 **한들한들** 걸어보십시오.)
어머니: 이레 보라. **ᄒᆞᆫ들ᄒᆞᆫ들** 걸엄시냐?
(이곳으로 보라. **한들한들** 걷고 있느냐?)

#6 (ᄇᆞ름 어신 날) 낭섭도 **ᄒᆞᆫ들ᄒᆞᆫ들.**
((바람 없는 날) 나뭇잎도 **한들한들.**)

#7 (나비가 ᄂᆞ는 모냥) **ᄒᆞᆫ들ᄒᆞᆫ들.**
((나비가 나는 모양) **한들한들.**)

#8 (ᄆᆞᆫ딱) **혼들혼들.**
((모두) **한들한들.**)

<해설>
'혼들혼들'의 표준어는 '한들한들'이며, 한들거리는 모양을 나타낸 의태어이다. 예를 들어 걸음이 혼들혼들 걸엄쩌. (걸음이 한들한들 걷고 있어.), 나비가 혼들혼들 놀암쩌.(나비가 한들한들 날고 있어.), 낭섭이 혼들혼들 움직염쩌. (나뭇잎이 한들한들 움직이고 있어.) 등에 쓰인다.

<낱말 알아보기>
ᄆᆞ술: 마을
치메: 치마
저레: 저곳
곱닥ᄒᆞ다: 아주 매끈하고 곱다.
재게: 빨리
ᄆᆞᆫ딱: 모두
낭섭: 나뭇잎